

# 報會同聖啓

교훈 :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2012. 7. 제57호



계성학교총동창회

[www.keisung.or.kr](http://www.keisung.or.kr)



# 세계로 뻗어가는 NEPES CapLED

독자적인 Cap LED™(High Power Package)기술로 미국특허 자체보유  
대형 공장 형광등조명을 LED조명으로 세계 최초 성공적으로 교체

**장점** | 100% 무결점에 도전하는 빛 품질의 우수성

저비용 & 고효율의 뛰어난 경제성(ROI : 평균 2.5년)

가정용 생활조명, 공장, 대형마트 등 실내조명에서 가로등의 옥외조명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라인(고객맞춤화 가능)

## Former Phillips

Clean room LED Light in Thailand



## Chechen Republic

Cap Street Light 150W



## KCC : Photo zone

Yellow Lamp in Korea



**nepes**  
nepes corporation

서울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9-2 하임빌딩  
오창2공장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송대리 311-2  
Tel. 043-240-9497

계성총동창회장  
NEPES CEO 이 병 구





#### 표지 그림

- 제목 : 휴식(안동 하회마을)
- 크기 : 145.5cm X 112cm
- 재료 : Oil on canvas
- 제작연도 : 2004년

#### 윤상천(75회)

경북대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12회(미국 초대전 2회), KOREA INTERNATIONAL ART FAIR(COEX, 서울), DAEGU INTERNATIONAL ART FAIR(EXCO, 대구), 국내 외 단체전 200여 회 참여, 경북대, 대구대 강사 역임

## 啓聖同窓會報

〈제 57 호〉

발 행 일 : 2012년 7월 25일

발 행 인 : 이 병 구

편 집 인 : 김 정 길

편집주간 : 정 만 진

발 행 처 : 계성학교총동창회

주 소 : 700-720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전 화 : (053)255-3900

전 송 : (053)256-4942

인 쇄 처 : 금성기획

전자우편 : keisung@keisung.or.kr

홈페이지 : 계성학교총동창회(www.keisung.or.kr)



계성학교총동창회  
www.keisung.or.kr

# 啓聖同窓會報

## 목 차

### 발간사 및 축사

- 04 발간사 : 총동창회장 이병구(53회)
- 05 축사 : 재경동창회장 한영로(54회)

### 총동창회 소식

- 06 2012년도 정기 총회 및 신년 교례회
- 08 총동창회 동호회, 기별 대표자 회의  
계성마라톤회 '2012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참가
- 제14회 총동창회 기별 등반대회
- 09 제21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테니스대회  
제19회 총동창회 기별 바둑대회

### 동문 동정

- 10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의원 계성동문, 신일회(44회) 동문
- 11 김우홍(45회) 동문, 신현수(45회) 동문
- 12 정충영(45회) 동문, 이신화(47회) 동문
- 13 함인석(55회) 동문, 박우동(56회) 동문, 고동현(57회) 동문
- 14 이강일(61회) 동문
- 15 이광열(61회) 동문, 이재원(61회) 동문
- 16 이의춘(62회) 동문, 홍종욱(65회) 동문, 조경래(67회) 동문
- 17 최원준(71회) 동문

### 기별·지부·직능·동호회 소식, 문화 광장

- 18 기별 소식
- 28 지부별 소식
- 33 직능별 소식
- 34 동호회 소식
- 35 문화 광장 - 김병해(62회) 동문

### 원로 동문과의 만남

- 36 장성훈(23회) 원로목사
- 38 이기섭(38회) 동문
- 40 김영주(38회)·김치훈(43회) 동문

###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 42 홍의락(60회) 동문, 이한성(63회) 동문, 안종범(64회) 동문

### 동문 인터뷰

- 44 홍의락(60회) 동문
- 46 안종범(64회) 동문
- 48 박태인(47회) 동문
- 50 본회 박연탁 감사

### 계성인의 서재

- 52 박두포(32회) 동문 / 《미수기념문집》
- 53 김현준(63회) 동문 / 《시각과 문화》
- 54 김준호(71회) 동문 / 《최신중국세법실무》  
박태준기념사업회 / 《청라언덕》

### 모교 소식

- 56 모교 소식

### 납부 내역

- 58 2012년 장학기금  
2012년도 회보구독료



## 가을의 풍성한 열매와 선후배 동문들의 건승을 위해

사랑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다들 무탈하게 건강하신지요? 하나님의 가호 속에 더욱 건승하시고, 모두 하시는 일마다 원활하게 성취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총동창회장으로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에 힘입어 총동창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모교 또한 자사고 첫 출범 이후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재도약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모교와 총동창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항상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얼마 전 미국 LA에 사는 우리 동문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멀리 이국에서도 선후배 동문 간에 정을 나누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동문들은 그 이상으로 조국과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일해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 동문들도 가일층 분발하여 앞으로 더욱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황무지나 다름없던 그 푸른 언덕에 모교 계성학교가 세워진 것은 바람 앞의 등불 같았던 조국을 배움의 빛으로 깨치려고 했던 계성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배움에 주려 울고 있는 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어둠에 서서 방황하는 자에게 빛의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계성 정신입니다. 계성 정신은 언제 불려도 가슴 뭉클한 우리의 교가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역량과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흔히 '소통'이라는 말을 자주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개개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인이 되고, 책임을 다하는 계성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동창회가 모교는 물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그 계성 정신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가을이 오면 총동창회 체육대회도 열립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뜨거운 화합의 기운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10월의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준비하십시오.

동문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가을의 풍성한 열매가 찾아올 것을 믿으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2년 7월

총동창회장 이 병 구 (53회)



# 계성의 새 백년 창조, 재경동창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계성 선후배 동문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람되지만 이번에 제가 재경동창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전임 회장님들께 큰 인사를 올리며, 특히 바로 전임인 윤동한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크나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경계성가족친선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들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문 가족들 모두 뜻하는 바를 순조롭게 성취하시라는 뜻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성동창회보의 속간을 축하드립니다. 이 책은 선후배 동문들의 갖가지 소식을 주제별로 다양하게 전해줌으로써 동문 상호간 우애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두툽한 회보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이병구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선후배들, 각 기수별 회장단과 총동창회 사무처 및 편집부의 노고가 막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재경동창회 역시 지금처럼 엄청난 동문들을 잇는 가교인 회보 발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다짐하는 바입니다.

고교 평준화 이후 한동안 침체 일로를 걸었던 우리 모교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만큼 여기에 거는 동문들의 기대가 참으로 큼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정성으로 바라면서, 모교와 총동창회를 위해 재경동창회가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선후배 동문 사이의 정을 더욱 돈독히 쌓을 수 있는 전향적인 자리들을 더 많이 마련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재경 회장단, 재경 동문 모두의 활동을 전국 방방곡곡 선후배 동문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총동창회를 키우고 모교를 가일층 일으켜 세웁니다. 총동창회 사업의 폭발적 성공과 후배들에 대한 장학사업 확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저 또한 선후배 동문들의 건강과 건승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추억이며 희망인 계성을 위해, 계성의 '새 백년' 창조를 위해 1년 365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동문 가족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재경동창회장 **한 명 로** (54회)



## 2012년도 정기 총회 및 신년 교례회

2012년 2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2012년 2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400여 명의 계성 선후배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총동창회 정기 총회 및 신년 교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 식여가는 계성인의 정체성을 시급히 재확인해야 할 것

제1부는 김정길(56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회 선언에 이어 이동인(65회·계명대 교수) 동문이 지휘하는 한울림관 현악단의 연주에 맞춘 찬송에 이어 예광교회를 시무하는 최태조(48회·계성목장회장) 목사의 성경봉독과 기도가 있었다.

제2부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 선열 및 작고한 계성 동문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이 이어졌는데, 이병구 회장의 제안(지금까지 총동창회 의식에는 없었던)으로 애국가 4절을 전부 제창하게 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새겼다.

동문들의 건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기원하는 신년사에 이어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 출마 예상 후보 동문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다.

박성대 모교 장학재단 이사사의 격려사와 김재현 모교 교장의 축사 후, 재직할 당시 “세포”로 이름을 날렸던 김문선 선생님이 모교와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 전보를 보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 이주국(31회) 선배, 모교와 총동창회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제13회 장수상 수상

특히 이날 이주국(31회) 선배님께 제13회 장수패를 수여했는데, 이주국 선배님은 지난 날 모교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컸으며, 모교 졸업 후 지금까지 31회 동기회 총무를 맡는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사무처장의 업무 및 경과보고가 있었다. 박연탁(50회)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회무가 적절히 수행된 것을 보고했으며,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3부는 김영호(54회) 동문의 사회로, 관악합주단의 축하 연주 및 교가 제창, 축하 케이크 커팅 순서가 있었고, 만찬을 위한 건배사는 김태동 모교 재단 이사장, 김용태 前 총동창회장, 장영철 前 장관, 한명로(54회) 재경동창회장, 유윤철(52회) 동문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 2012년도 회장단 및 이사회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 심의

한편 정기 총회 및 신년 교례회에 앞서 2012년도 회장단 및 이사회가 총동창회 회장단, 각 지부 및 기별 회장과 총무단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 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에서 열렸고,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총/동/창/회/소/식

## ■ 총동창회 동호회, 기별 대표자 회의 모교 직원 식당에서 열려



2012년 3월 23일(금) 오후 6시 모교 직원 식당에서 각 동호회 회장과 총무단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창회 동호회, 기별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토의 된 사항은 10월의 체육대회를 비롯, 각 동호회의 연간 계획에 따른 경기 요강 등을 발표하고 확정하였다.

## ■ 계성마라톤회 '2012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참가 82명 동호인이 참가, 완주해



지난 4월 8일 오전 8시부터 '2012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국채보상공원에서 열렸다. 이 대회를 공식참가대회로 지정한 계성마라톤회에서는 10km 종목에 66명, 풀코스 42.195km 종목에 16명 등, 모두 82명의 동문들이 참가하였다. 대구 중심부에서 출발하여 대구역, 감삼역, 두산오거리, 범어로타리 등을 거쳐 신매네거리에서 마지막 반환을 한 후, 다시 국채보상공원으로 끝인한 이 대회에서 우리 동문 80여 명은 계성 마크를 달고 전원 완주하여 계성의 이름을 대구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대구시내 90여 개 고등학교 중 유일한 동문 마라톤회인 계성마라톤회는 대구에서 가장 큰 마라톤대회인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 해마다 주로 50~60대 8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하여 철각(鐵脚)을 뽐냄으로써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건강함을 자랑하고 있다. 대회가 끝난 후 계성마라톤회 동문 회원들은 서로 간에 우의와 정을 돈독하게 쌓는 모습을 보여줘 다른 참가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 ■ 제14회 총동창회 기별 등반대회

### CB팀 1위 55회, OB팀 1위 62회, YB팀 1위 71회

제14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등반대회가 계성총동창 산우회 주관으로 2012년 5월 20일(일) 오전 9시 대덕산(603.5m) 일원에서 열렸다. 대구광역시 스타디움 옆 만보정에서 집결한 기별 선수단은 평소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쳐보였다.



- 일시 : 2012. 5. 20(일) 오전 9시
- 장소 : 대덕산(603.5m) 만보정(월드컵경기장 집결)
- 주최 : 계성총동창회
- 주관 : 계성총동창회 산우회 (<http://cafe.daum.net/keisungmt>)

#### 등반대회 성적

	CB	OB	YB
1위	55회	62회	71회
2위	60회	65회	75회
3위	54회	63회	76회
모범상	56회	61회	-
장려상	-	70회	79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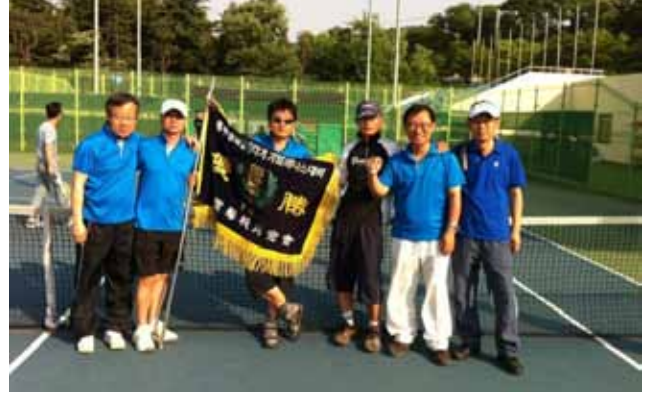
## ■ 제21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테니스대회

### OB 69회, YB 71회 우승

제21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테니스대회가 71회 동기회 주관으로 2012년 5월 27일(일) 오전 9시 대구 두류테니스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CB팀은 53회부터 60회까지, OB팀은 61회부터 70회까지, YB팀은 71회부터 80회까지로, 승패를 겨룬 결과 우승 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특히 이날 변강석(71회) 동문이 기념품 및 티셔츠를 협찬했으며, 익명(55회)의 동문이 음료수를 제공했다.

- 일시 : 2012. 5. 27(일) 오전 9시
- 장소 : 대구 두류테니스장(야외음악당 옆)
- 주관기수 : 71회 동기회
- 참가기수 : CB - 53회~60회, OB - 61회~70회, YB- 71회~80회
- 경기결과
  - 1) O.B. : 우승 - 69회, 준우승 - 64회, 3위 - 70회
  - 2) Y.B. : 우승 - 71회, 준우승 - 77회, 3위 - 75회



## ■ 제19회 총동창회 기별 바둑대회

### 선후배 구분 없이 실시, 통합 우승 64회 차지

지난 7월 8일 대구시 바둑협회에서 제19회 계성총동창회 기별 바둑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54회, 56회, 58회, 59회, 60회, 61회, 62회, 63회, 64회, 65회, 71회, 72회 모두 12개 기수가 참가하였으며, 조 추첨 결과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다.

- A조 : 59회, 60회, 65회
- B조 : 58회, 63회, 71회
- C조 : 54회, 61회, 72회
- D조 : 56회, 62회, 64회



조별 리그전을 거친 결과 A조에서는 59회가, B조에서는 58회가, C조에서는 72회가, D조에서는 64회가 각각 2승으로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하였고, 준결승에서 58회는 72회를 물리치고 64회는 59회를 물리치며 결승에 진출하여 64회가 영광의 통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는 CB, OB, YB의 구분이 없이 진행되었으며,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팀은 예선 성적을 바탕으로 체육대회 성적에 반영할 성적을 산출하였으며, 각 성적은 다음과 같다(YB의 경우 두 팀만 참가하였으므로 3위가 없음).

	우승	준우승	3위
CB	58회	59회	54회
OB	64회	65회	63회
YB	72회	71회	-

##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의원 계성동문

대구상공회의소가 제21대 상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상의 지도부에는 계성 동문들이 13명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부회장과 상공의원의 명단이다.

### ▶ 부회장단 동문

김신길(54) 동문(아세아텍), 김상태(58) 동문(평화발레오), 한재권(60) 동문(서도산업)

### ▶ 상공의원 동문

#### ▲특별의원



이택봉 (59회)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시건축사회



추교원 (59회)  
대구신용보증재단

#### ▲일반의원



이무웅 (50회)  
세하주식회사



홍호웅 (53회)  
(주)동우이엔씨건축사무소



김신길 (54회)  
(주)아세아텍



손영대 (55회)  
삼양주유소



김상태 (58회)  
(주)평화발레오



한재권 (60회)  
서도산업(주)



박상태 (60회)  
(주)성안



이영목 (63회)  
세진냉장



이승화 (65회)  
(주)동방플랜텍



양승재 (71회)  
심화식품(주)



박재홍 (72회)  
신라섬유(주)



### 신일희(44) 동문 : 계명대 총장 만장일치 재선임

학교법인 계명대는 지난 6월 15일 오후 성서캠퍼스 본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신일희 現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신일희 동문은 계명대 초대 총장(1978~1982년)을 지낸 이래 4~7대 총장(1988~2004년)을 연임했고, 현 9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이번 재선 임기까지 합하면 28년간 계명대 총장으로 지내는 것이다. 신일희 동문은 이날 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오늘의 계명대가 있기까지 버팀목이 된 법인 이사님들의 권고를 거절할 수 없었다.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 임기는 2012년 7월 6일부터 2016년 7월까지 4년간이다.





### 김우홍(45회) 동문 : 모교 경북대에 '침소상' 기증

우리나라 전통 소(牛) 중에는 호랑이와 무늬가 비슷한 품종이 있다. 흔히 '침소'라고 하며 한자어로 '호반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소는 순박하면서도 강인해서 대단한 우량소로 인정받지만 현재 남은 개체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중섭 화백의 그림에 자주 등장해서 많이 알려졌다.

지난 6월 22일 경북대에서 침소상 제막식이 열렸는데,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 앞 잔디공원에 설치되어 경북대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우홍 동문이 모교인 경북대에 기증한 침소상 이름은 '진호우(進虎牛)'이며, 호랑이의 용맹한 기백이 당당하게 잘 표현되었고, 가로 6미터, 높이 2미터, 무게 2.5톤의 대형 브론즈상이다. 그가 이 같이 뜻 깊은 일을 한 것은 후배들이 침소의 기백과 투지를 되새기길 바랐기 때문이다.

김우홍 동문은 1963년 경북대 졸업 이후에도 수의대 총동창회장 및 경북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줄곧 경북대 발전을 위해 애썼다. 그는 “우리 경북대가 물러서지 않는 진취적인 기백과 역동성, 지치지 않는 강인한 투지를 지닌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대내외에 널리 천명하고, 이를 통해 경북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진호우(進虎牛)’ 동상을 제작하여 기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막식



침소상



### 신현수(45회) 동문(안동의료원장) : 의사로 살아온 40년의 삶을 정리하는 책 펴내

“40여 년을 외과의사로 살면서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환자들이 없었던 저는 정말 운 좋은 외과의사입니다. 이 책은 한 외과의사가 진료실 안팎에서 겪은 삶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신현수 동문은 現 안동의료원장이며, 외과 의사 40년 삶을 정리하며 책 《나는 운 좋은 외과의사》를 출간했다.

그는 1992년 제4대 안동의료원장으로 취임한 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병원을 우수한 의료시설을 갖추며 최고 경영 평가를 받기까지의 숭한 애환과 노력들을 책에 담았다.

아울러 첫 수술을 집도했던 기억과 곱사등이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 마취 기술이 부족한 시절에 양주로 마취한 뒤 어린아이의 척추와 연결된 꼬리뼈를 제거했던 수술 경험 등을 진솔하게 정리했다. 이외에도 사회봉사와 구호활동을 적은 '적십자와 나', 골프장 유치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던 故 권정생 선생과의 대립을 다룬 '골프에 이야기' 등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도 소개했다.

신현수 동문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안동의료원 20년, 그리고 오늘의 모습' 등의 글을 통해 농촌지역에 소재한 안동의료원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정충영(45) 동문(前 대구도시가스 대표) : 경일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임용**

경일대는 대구도시가스 대표와 경북대 명예교수를 역임한 정충영 동문을 경영학부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정충영 동문은 경북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26년간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상대 학장 및 경영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한국산업경영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대구 사랑의 집짓기운동과 대구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100여 편의 논문과 20여 권의 저서를 펴낸바 있는 정충영 동문이 경일대에서 맡은 강의는 '부의 진화 : 게임과 네트워크'와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의 교양 과목이다. 그는 40여 년간 대학 강단에 선 경험과 4년간 CEO 경험을 바탕으로 경일대 학생들을 인재로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신화(47) 동문(김천예교 교장) : 한국음악상 본상 수상**

이신화 동문이 국내외 음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음악상 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음악협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국내외로 한국인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인 음악인에게 주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신화 동문은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미국플로리다 주립대학원을 나왔다. 김천예교를 운영하면서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예술 인재를 배출해왔으며, 김천시합창단장 및 한국음협 경상북도 지회장을 역임하고, 경북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하는 등 지역 음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남다르다.



#### **함인석(55) 동문(경북대 총장) : 대학교육협의회장 취임**

함인석 동문이 지난 4월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경쟁력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함인석 동문은 1984년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에 임용된 뒤 경북대 의과대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 대한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 한국보건전문대학원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계신경외과학회 재무위원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이며 2010년 9월부터 경북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 **박우동(56) 동문(풍산방산총괄 대표) : 글로벌 혁신 최우수기업상과 유공자상 수상**

국내 유일의 종합 탄약 업체인 (주)풍산안강사업장이 지난 6월 2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년 글로벌 혁신 컨퍼런스’에서 TPM 최우수기업상과 유공자상을 받았다.

박우동 동문은 ‘혁신 활동이 선물한 글로벌 경쟁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그는 “방위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품질이며 최고의 품질은 혁신으로부터 얻어진다.”며 “방산수출 실적 5년 연속 1위 달성과 미국 스포츠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성과도 혁신 활동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이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와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제21회 글로벌 혁신 컨퍼런스’는 TPM, 생산혁신, 6시그마를 비롯해 다양한 경영혁신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매년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TPM은 직원들 스스로 자신이 맡은 생산설비를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영혁신 활동이다. 풍산안강사업장은 2007년 처음 TPM을 도입했다.



#### **고동현(57) 동문 : 대구달리네클럽 창단 주도**

“2001년 2월 17일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키 169센티미터, 몸무게 77킬로그램, 허리 38인치에 고혈압, 고지혈, 복부비만 등 온갖 성인병을 가지고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고동현 동문은 그렇게 결심한 이후 대학 동기 등 지인들과 부부가 함께하는 마라톤 동호회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고, 5쌍(총 10명)이 모여 ‘대구달리네클럽’을 창단했다. 아울러 경



북기계공고에서 매주 세 차례 훈련을 했는데, 이곳에 운동 온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회원이 늘었다는 것.

이 클럽에서 마라톤을 하면서 고통의 순간도 적잖았지만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2005년 ‘서브쓰리’에 성공한 뒤 후유증으로 아킬레스건이 부분 파열되어 수술을 세 번이나 받고 2년을 쉬어야 했지만 2008년 다시 뛰기 시작해 지금도 연간 평균 다섯 차례 정도 풀코스를 완주하고 있다. 마라톤 입문 후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던 2002년 20만 원이 넘는 고가 마라톤화 밑창이 너무 빨리 닳는 것이 싫어 타이어를 운동화 뒤꿈치에 붙여 뛰기도 했다.

고동현 동문은 “수술 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재활 끝에 결국 재기했다. 지금도 1킬로그램의 모래주머니를 하루 종일 양쪽 발목에 차고 생활합니다. 타이어를 신발에 붙인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로, 이는 부상의 지름길입니다.”라고 충고했다.

가장 황홀했던 순간은 마라톤 ‘명인’의 반열에 올랐을 때다. 2005년 4월 3일 전주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59분 44초를 기록, ‘서브쓰리’의 대기록을 달성한 것. 보스턴마라톤대회에 참가한 것도 최고의 희열 중 하나다. 그는 “마라톤 입문 3년 만에 보스턴마라톤대회 참가자격(50대 / 3시간 35분 59초)을 획득하고 4년째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2년 만에 기준 기록을 통과하고 3년째에 참가했다. 이후 서브쓰리도 달성하며 마라톤 시작 4년 만에 마라톤 ‘명인’의 칭호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고동현 동문은 “아마추어 마라토너의 꿈은 보스턴, 시카고, 뉴욕, 베를린, 런던 등 세계 5대 마라톤대회에 모두 출전하는 것인데 뉴욕과 런던만 남은만큼 모두 다 완주하고 싶습니다. 무리한 욕심보다는 최소 4시간을 넘지 않겠다는 목표로 앞으로도 계속 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이강일(61) 동문(계명대 교수) 트럼펫 리사이틀

이강일(61) 동문(계명대 교수)의 트럼펫 리사이틀이 지난 6월 1일 오후 7시 30분 계명대 음악공연예술대학 해담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서울대 음대와 독일쾰른국립대 음대를 졸업한 이강일 동문은 국내 대표적인 트럼펫 연주자로 활발한 연주와 지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아들 지훈 씨와 함께 섰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트럼피터 이 지훈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테트몰드국립음대에 재학 중이며, 서울대 콩쿠르 1위 수상과 일본 프리미어브라스앙상블, KBS교향악단과 협연한 경력이 있다.



**이광열(61회) 동문(이광열내과의원장) : 미국인명센터로부터 히포크라테스상 수상**

이광열 원장(이광열내과의원)은 미국인명연구소(ABI : 세계 3대 인명사전 발행기관의 하나)에서 세계 75개국을 대상으로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아픔을 희생과 인내로 함께 나누며 높은 수준의 의학적 기술과 지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참여하는 의사 100명을 매년 선발하는 히포크라테스상을 수상하였다.



**이재원(61회) 동문(영남대 교수) : 한국섬유기계연구소장 선임**

한국섬유기계연구소(이사장 장용현)는 지난 6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3년간 연구소를 이끌어갈 연구소장으로 영남대 기계공학부 이재원 교수(56세)를 선임했다.

신임 이재원 소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조지아공과대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항공우주국 마셜플라이트센터(NASA Marshall Space Flight Center)에서 근무하였다. 아울러 1991년부터 현재까지 영남대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최근 영남대 기획처장을 역임하고, 인적자원개발(HRD) 단장을 맡고 있으며, 연구기획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책임자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시야를 가졌다는 평가다.

섬유산업 업계에서는 신임 이재원 소장이 기계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인맥과 경험을 활용하여 향후 국책사업을 수행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섬유기계연구소 전경

한국섬유기계연구소는 섬유기계 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2003년 3월 설립되어, 현재 섬유기계 산업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간 섬유기계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맞춤형 애로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산 섬유기계를 주요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취임하는 이재원 소장은 “한국섬유기계연구소를 우리나라 섬유기계 산업의 Hub-R&D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섬유기계 전문 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한 포부를 내비쳤다.



#### 이의춘(62) 동문(대구가톨릭대 교수) : 대학에 장학금 기탁

대구가톨릭대 성악과 이의춘 교수가 최근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학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소병옥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 교수는 “어려웠던 학창시절과 유학시절을 겪어서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앞으로 10년 간 매월 일정액을 기탁할 계획이다.



#### 홍종욱(65) 동문((주)팔공건설 대표이사) : 최우수 건설업체로 선정

홍종욱(65) 동문((주)팔공건설 대표이사)는 대한건설협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되어 5월 22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32회 정기총회에서 협회기를 받았다. 팔공건설은 2011년도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공사수주 실적 신장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조경래(67회) 동문 :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조경래 경북도청소년수련센터 수련부장이 2012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여성가족부(김금래 장관)는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5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청소년 및 청소년 활동 단체 관계자, 일반인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2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금래 장관은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밝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길 기원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조경래 수련부장은 청소년 육성 분야에서 20여 년 이상을 헌신하며 청소년 교육에 열성을 다했고, 특히 구미 지역 최대 청소년 축제인 ‘IG 청소년 드림페스티벌’을 기획 및 연출하며 청소년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사회봉사 활동에도 남다르게 참여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금오산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 당시 구미시장으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각종 봉사 활동을 통해 몸으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조정래 수련부장은 구미시 다문화지원센터 산하 아름다운베이커리에 선뜻 출자하는 등 남다른 애향심을 드러내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

선산 무율이 고향인 조정래 수련부장은 고인이 된 춘부장 조운성 前 구미시의원(1, 3대)의 영향을 받아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제20회 LG기 주부 배구대회에서 주부 배구대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2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부인 한영미 씨와 사이에 1남(조현창 군)을 두고 있다.



**최원준(71회) 동문(주)파워옴 대표이사 : 2012컬러풀대구페스티벌 예술감독 선임**

대구문화재단은 지난 5월 17일 ‘2012컬러풀대구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최원준 동문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대구문화재단은 2012컬러풀대구페스티벌 예술감독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최원준 동문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다.

최원준 동문은 단국대 공연예술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2002한일월드컵 대구문화 행사 실무추진단 감독, 2007~2009년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운영감독, 2011~2012년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총감독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과 대구 수성구 축제추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중양로를 중심으로 동성로와 도심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축제장으로 만드는 등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12컬러풀대구페스티벌은 제93회 전국체전 기간인 오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중구 중양로, 동성로, 도심공원 일원에서 패션을 콘셉트로 열린다.



## 제 35 회

### ■부고

- 석남수 동문(총동창회 고문) 별세(2012. 3. 4)



## 제 44 회

### ■춘계야유회

- 일 시 : 4월 17일(화) 12시
- 장 소 : 팔공산 산중식당
- 참석인원 : 30명
- 중식 후 희망자에 한해 산행

### ■부고

- 김재양 동문 부친상(2012. 2. 13)



## 제 45 회

### ■경사

- 정하우 동문 자녀 결혼(2012. 5. 26)



## 제 47 회

### ■경사

- 양해건 동문 자녀 결혼(2012. 3. 3)



## 제 48 회



- 이수광 동문 : (사)자연보호총연맹 총재가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총재에 연임됐다.



## 제 49 회

### ■제40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 일시 : 1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두산동 리틀베어 ※40여 명 참석
- 1부 : 감사 보고, 사업 보고, 결산 보고 및 임원 개선  
회장 : 설춘수, 총무 : 임병용 재선임
- 2부 : 즐겁고 흥겨운 만찬
- 3부 : 초청 여 가수 두 명의 공연과 밴드 연주, 춤과 노래 등 기념품 증정

### ■경사

- 박봉흠 동문 아들 결혼(2012. 4. 1)
- 이성구 동문 아들 결혼(2012. 4. 21)

### ■부고

- 심영견 동문 본인상(2012. 1. 5)
- 서철교 동문 본인상(2012. 5. 12)

### ■공연

- 강중수 동문(경북대 명예교수) : 동문예술가곡 작곡발표회  
일시 : 2012. 3. 20(화) 오후 7:30  
장소 : 수성아트피아 무학홀



## 제 50 회

### ■동기회 정기총회

지난 3월 31일 동기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가 열렸다. 동기들의 정을 확인하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는데, 회장에 박연탁, 부회장에 김덕수, 감사에 김일득 회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아울러 회장이 최종원 회원을 총무로 임명하였다. 회원들의 뜨거운 협조를 부탁한다.

### ■회원 동정

- 박연탁 회장이 지난 4월 19일 순천향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집행부와 신우회 회원 다수와 총동창



## 제 52 회

회 박성대 前 회장과 김태동 재단이사장, 김정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기쁨을 나누며 축하했다.

- 배경호 회원의 자녀 결혼식이 지난 4월 28일 인터불고호텔에서 있었고,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 ■소식

- 동기회 사무실이 항상 개방되어 있다. 자주 오셔서 회원 간의 정을 나누고, 동창회 활성화를 모색해주시기 바란다.
- 박연탁 회장이 동기회 재정을 위해 일금 백만 원을 기탁하였다.
- 그동안 진행하였던 월요 모임, 화요 모임, 걷기 모임 등을 매월 집행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워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를 '회원 상봉의 날'로 정했다. 회원 상봉의 날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지난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회원 상봉의 날을 통해 회원 간 좋은 시간을 보냈다. 뒤풀이에서 다들 한 잔씩 하며 정을 나누었고, 경비는 박연탁 회장이 담당했다.
- 회원들의 경조사, 동정, 주소 이전 등의 사항을 수시로 총무에게 연락주시면 동기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 ■경사

- 이용배 동문(11대 동기회장) 자녀 결혼(2012. 1. 7)

### ■부고

- 이용배 동문 모친상(2012. 6. 14)
- 박연탁 동문 부인상(2012. 7. 3)



## 제 51 회

### ■1/4분기 정기총회

지난 3월 28일 한일식당에서 열린 2012년도 정기총회에 회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2014년도에 시행하는 졸업 50주년 기념 및 칠순잔치에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부터 참가 신청비 3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2/4분기 회의는 6월 29일에 한일식당에서 개최하였다.



### ■2012년도 회장단

	대 구	재 경
회 장	김일헌	장희성
재 무	조영복	한상열
총 무	김시우	박찬엽

### ■경사

- 이종희 동문 장남 결혼(2012. 1. 7)
- 故 정영철 동문 장녀 결혼(2012. 2. 4)
- 이재식(재경) 동문 차녀 결혼(2012. 3. 24)
- 김철호(재경) 동문차녀 결혼(2012. 5. 22)
- 박 영 동문 3남 결혼(2012. 6. 19)

### ■부고

- 정영철 동문 본인상(2011. 12. 22)
- 김진식 동문 본인상(2012. 2. 22)
- 이성우(재경) 동문 부친상(2012. 4. 28)
- 김춘목(경주) 동문 본인상(2012. 5. 31)

### ■만남의 행사

- 행사명 : 계성 52회 동기회 제14차 만남의 행사
- 일 시 : 2012년 5월 12일 토요일
- 장 소 : 충북 제천시 청풍명월 유원지 일원

이날 전국 각처의 회원 78명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여 동기간의 우정을 나누었고, 만남의 행사를 지원해주신 제천시장과 제천시 관광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제 53 회

### ■행사

- 신년 53교례회 및 다과회(동기 13명 참석) (2012. 1. 4)
- 신임 53동기 회장 인사장 우편 발송(53동기 116명 참석)(2012. 2. 6)



# 기/별/소/식

- 총동창 총회 및 신년교례회 참석(53동기 15명 참석) (2012. 2. 10)
- 축하 – 홍호용 동문/투어스파벨리여행사 개업 (2012. 2. 24)
- 춘계 530이사회 개최(28명 참석) (2012. 2. 25)
- 제55회 보화상 시상식(53동기 20명 참석) (2012. 4. 25)
- 동기산악회원과 동기회원의 합동여행(가거도/1박 2일) (2012. 5. 12)
- 계성총동창 테니스대회 참가(2012. 5. 27)

## ■동우회 행사

- 동기 산악회 정갑동 신임회장 발대 산행(앞산 / 14명 참석) (2012. 1. 8)
- 동기 산악회 두리봉 시산제(15명 참석) (2012. 2. 12)
- 동기 산악회(2012. 3. 11)
- 동기 잔차회 시승회(2012. 3. 15)
- 동기 산악회(2012. 4. 8)

## ■경사

- 서재홍 동문 차남 결혼(2012. 2. 19)
- 서재덕 동문 차남 결혼(2012. 3. 11)
- 박진호 동문 장남 결혼(2012. 4. 1)
- 손태암 동문 차남 결혼(2012. 4. 8)

## ■부고

- 김동관 동문 본인상(대구의료원 국화원) (2012. 1. 28)
- 장규호 동문 본인상(대구카톨릭병원 영안실) (2012. 4. 7)



## 제 54 회

## ■회장단 회의

**1차** – 지난 1월 30일 시내 한 식당에서 2012년도 1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희승 회장의 주최하고, 손의호 부회장, 이광준 부회장, 이응재 부회장, 최무원 부회장이 참석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올해 동기기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2차** – 지난 4월 12일 시내 한 식당에서 2012년도 2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응재 부회장이 주선하여 김희승 회장, 이광준 부회장, 이종열 부회장, 최무원 부회장, 김기룡 총무, 우진권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봄 야유회 행사 및 금년 동기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이사회

**1차** – 지난 2월 20일 2012년도 1차 이사회가 내당동 삼원회수관에서 열렸다. 김희승 회장을 비롯하여 손의호 부회장, 이광준 부

회장, 이종열 부회장 등 36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새로 구성된 집행부를 소개 후 서로 상견례하였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올해 동기기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희승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뿌리가 튼튼한 우리 54동기회는 올해도 잘 될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믿음직한 이사님들의 든든한 지원을 기대한다.”며, 항상 집행부나 동기들을 대할 때 좋은 점을 먼저 생각하자고 강조하였다.

**2차** – 지난 4월 18일 2012년도 2차 이사회가 내당동 삼원회수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기룡 총무의 진행으로 이광준 부회장, 이종열 부회장, 최무원 부회장 등 32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였고, 봄 야유회 행사에 대해 논의 후 장소와 일정을 확정하였다. 금년 봄 야유회 행사는 관광 야유회 대신 팔공산 온천관광호텔의 야외 소공원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로 하였다.

이광준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봄 야유회 행사에 동기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고, 이 행사를 통해 동기들의 단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광준 부회장은 9년 동안 총무직을 성실히 수행한 최정대 前 총무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최정대 前 총무는 이사님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9년 동안 무사히 총무직을 수행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 ■동문 동정

- **한명로** 동문 : 지난 2월 13일 개최된 재경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되었다.
- **김신길** 동문 : 최근 멕시코에서 아세아텍 제품 수출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로써 아세아텍은 글로벌 기업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고, 뿐만 아니라 김신길 동문은 3월 3일 ‘조세의 날’을 맞아 국세청으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 **여운재** 동문 : 지난 2월 17일 대구대학교에서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오현수** 동문 : 오성고등학교장을 끝으로 36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지난 2월 24일에 정년퇴임하였다.
- **김복수** 동문 : 반야월초등학교장을 끝으로 43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지난 2월 15일에 정년퇴임하였다.

## ■취미클럽 소식

### – 기유회 –

지난 2월 18일 범어동 궁전기원에서 신춘대국으로 월례회를 가졌다. 연임된 강석건 회장은 바둑을 통해 동문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올해도 즐거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아울러 3월 정기행사를 범어동 궁전기원에서 가졌다.

매월 3토요일 / 강석건 회장(010-3507-7669)

## — 성산회 —

지난 2월 19일 앞산에서 올해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하여 시산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황순길 회장, 이성교 총무 등 13명의 회원이 참가하였고, 황순길 회장은 올해도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산행이 이어가기를 회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3월 정기행사를 전남 여수에 소재한 영취산에서 가졌다.

매월 셋째 일요일 / 이성교 총무(010-3823-2123)

## ■경사

- 설성용 동문 장녀 설자경 양 결혼(2012. 1. 11)
- 손의호 동문 차녀 손민정 양 결혼(2012. 1. 15)
- 이규백 동문 차남 이지화 군 결혼(2012. 1. 29)
- 정대현 동문 3녀 정옥진 양 결혼(2012. 2. 11)
- 박남수 동문 장남 곽재강 군 결혼(2012. 3. 3)
- 이상철 동문 차남 이지웅 군 결혼(2012. 3. 4)
- 유경술 동문 장남 유중화 군 결혼(2012. 4. 15)
- 정해수 동문 차녀 정은영 양 결혼(2012. 4. 15)
- 이종국 동문 차녀 이선혜 양 결혼(2012. 5. 19)

## ■부고

- 권준열 동문 부친상(2011. 12. 20)
- 박병택 동문 부친상(2012. 2. 17)
- 허 정 동문 모친상(2012. 3. 30)
- 백용기 동문 모친상(2012. 4. 14)
- 이응재 동문 부친상(2012. 5. 18)

## ■봄 आय회 개최



### 5월의 한날을 즐겁게 만끽하며

본회의 봄 आय회가 지난 5월 5일 팔공산 능선에 자리한 팔공산 온천관광호텔 야외 소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김희승 회장을 비롯하여 이광준 부회장, 이응재 부회장, 이종열 부회장 등 74명의 동기들과 그 가족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화사한 5월의 햇살이 사방에 가득한 야외 소공원에는 간이 무대와 음향 시설 등이 마련되었고, 푸른 잔디 위에 적절히 비치된 파

라솔 등이 행사 분위기를 멋지게 연출하였다. 행사 시작 전에 일찍 도착한 부부 동반의 동기들이 그 자리를 메웠고, 손자와 손을 잡거나 독신으로 입장하는 동기들도 즐겁게 합류하였다. 아울러 준비된 뷔페와 멧돼지 바비큐가 입맛을 돋우며 모두가 만찬을 즐겼다.

우렁찬 팡파르에 맞춰 김기룡 총무가 마이크를 잡았고, 김희승 회장의 인사로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김희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가 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을 이룬 것에 감사하며,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동기들에게 거듭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얼마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서 욕심을 버리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자고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 장소 선정 및 협상에 수고한 이응재 부회장을 치하하고, 모처럼 행사에 참석한 박창환, 이태영 동기를 환영하였다.

김기룡 총무는 만찬을 즐기며 술 한 잔씩을 나눈 동기들을 무대로 불렀고, 반주기에 맞춰 노래자랑을 시켰다. 심영자(이회술) 여사의 잔잔한 노래와 함께 육성경(김희승) 여사가 발랄한 몸동작으로 김수희의 '남행열차'를 부를 때는 백댄서까지 출연하였다. 체면 때문에 관람만 하던 동기들은 하나둘씩 용기를 얻어 앞으로 나와서 노래하였다.

이창동 前 회장은 이색 곡인 '갯바위'를 멋지게 불렀고, 조진구 前前 회장은 흘러간 노래인 '번지 없는 주막'을 구수하게 불렀다. 또한 이종열 부회장은 '너를 울동적으로 불러 분위기를 사로잡았다.

온천 무료 입욕권이 걸린 여흥의 시간을 즐겁게 보낸 후 기념 촬영을 하였다.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아쉬운 마음이 남았지만 54 동기들은 정답게 서로 어르며 손을 잡았다.

### 5월의 즐거운 한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이 멋진 한날!

일 년 내내 우리 동기들의 가슴마다 간직될 추억!



## 제 55 회

## ■부고

- 김진도 동문 부친상(2012. 4. 26)



## 제 56 회

## ■ 동문 동정

- 김석준 동문 출판기념회(알리앙스웨딩) (2012. 1. 5)
- 이재윤 동문 출판기념회(엑스코 신관) (2012. 1. 11)

# 기/별/소/식

-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자금성) (2012. 2. 24)  
신임회장 : **우병국**, 총무 : **최돈문**
- 동기회 단합대회(산동성) (2012. 5. 13)
- **조영선** 동기 간암으로 문병(경대병원) (2012. 5. 14)
- 총동창회 산우회 등반대회 참가 (2012. 5. 20)
- 재경총동창체육대회(대구에서 14명 참가) (2012. 6. 6)

## ■경사

- **윤용준** 동문 장녀 결혼(대동타워) (2012. 1. 7)
- **이현택** 동문 차남 결혼(서울더청담웨딩) (2012. 1. 8)
- **김주건** 동문 차남 결혼(제이스호텔) (2012. 3. 24)
- **故 김호식** 동문 차녀 결혼(울산풀만엠베서드호텔) (2012. 3. 24)
- **조영철** 동문 자녀 결혼(노보텔) (2012. 4. 1)
- **손석준** 동문 장녀 결혼(옥수성당) (2012. 4. 28)

## ■부고

- **김홍달** 동문 부친상(보훈병원) (2012. 2. 25)
- **김기영** 동문 부인상(서울강남성모병원) (2012. 5. 30)
- **박덕길** 동문 모친상(대구전문장례식장) (2012. 5. 31)



## 제 58 회

## ■회갑 기념 여행

- 일 시 : 5월 12~14일(2박 3일)
- 여 행 지 : 일본 대마도
- 참석인원 : 69명(남 37명, 여 32명)



## ■축하

- **오창관** 동문 포스코에너지 사장 취임(포스코에너지 인천 본사)

## ■공연

- **전점석** 동문 : 희망창원찾기 북콘서트  
“친환경건축이 지구를 살린다”

- 일시 : 2012. 3. 9(금) 오후 4시~6시
- 장소 : 시민문화공간 흑백(경남 창원)



## 제 59 회

## ■경사

- **이종복** 동문 자녀 결혼(2012. 4. 8)

## ■부고

- **이택봉** 동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 대표이사 모친상 (2012. 1. 2)
- **김재현** 동문 모교 교장 모친상(2012. 1. 3)



## 제 60 회



- **한재권** 동문((주)서도산업 대표) : 금탑산업훈장 수상  
지난 5월 17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2012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2012년도 신임 회장단 선출

- 본부(대구) 회장 : **진동현**
- 총무 : **이진팔, 성백관**

대구 동호회별 회장단은 아래와 같다.

모임이름	회장/총무	모이는날	비 고
등산회	김영호/김창호	매월-1 일요일	총동창회
산우회	홍종근/김창호	매월-2 토요일 오후	60회만
반석회	김영철	매월-1 토요일 저녁	바둑
목달회	한영근	매주 월·목요일 저녁	마라톤
테니스회	손용식	매월-3 일요일 낮	테니스
KBC	장용현	매월-4 금요일 저녁	빌리어드(당구)
육공회	정인호/장성욱	매월-3 금요일	골프
스크린골프	김동락	매월-2·4 수요일 저녁	스크린골프

각종 동호회에서는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



- **육공회(골프)** : 제14회 육공회골프대회가 지난 5월 5일(토) 팔공골프클럽에서 개최되었다. 남자 16명, 여자 6명 등 모두 22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고, 경기 후 신페리오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남자 우승 현성용 동기, 준우승 김영호 동기, 여자 우승 김청일 동기의 아내가 차지했다.
- 대구·서울지역 동기들의 합동 산행이 지난 5월 12일(토) 충북 단양 구단봉에서 있었다. 연중 정기 행사로서 이날 서울에서 24명, 대구에서 21명이 참석하여 동기 상호간 친목을 다지고, 체력을 단련하였다. 산행을 마친 후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아쉬게 작별했지만, 이후에 다른 많은 동기들이 참석을 희망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 모임

- 회장 : 이재권
- 고문 : 홍의락, 김수만, 이호국
- 감사 : 김성주, 오봉희
- 총무 : 노정학(부회장 겸임), 박상봉, 박영준

## ■동기회 각종 소모임

- 산우회(1토회·회장 김재희, 등반대장 조동국)
- 인천 모임(2토회·회장 최형재)
- 동서울 모임(3화회·회장 전순종)
- 강북 모임(1목회·회장 서만근)
- 강남 모임(2수회·간사 조동국)
- 강서 모임(격월 3목회·회장 김연욱)
- 바둑 모임(3토회·재경 계성 동기 바둑회 회장 김대수)
- 화사회(4화회·골프 모임 회장 박상태)
- 테니스 모임(4토회·간사 오봉희)
- 치매 예방 모임(수시회·왕회장 심상우)



## 제 61 회



- 김진규(61) 동문 : 1월 4일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에 부임

## ■행사

- 61회 산우회 재결성(회장 최치식)
- 61회 전국 봄나들이(4월 14일(토) 문양역 뒷산, 20명 참석)

## ■경사

- 안기성 동문 장녀 결혼(2012. 1. 28)
- 이순동 동문 차녀 결혼(2012. 2. 4)
- 이국희 동문 장녀 결혼(2012. 2. 5)
- 박고수 동문 장남 결혼(2012. 2. 11)
- 신현철 동문 장녀 결혼(2012. 2. 12)
- 박동규 동문 차녀 결혼(2012. 3. 1)
- 배재한 동문 장남 결혼(2012. 3. 24)
- 최봉환 동문 장남 결혼(2012. 3. 30)
- 한형도 동문 장남 결혼(2012. 4. 7)
- 이근재 동문 장녀 결혼(2012. 4. 14)
- 심원필 동문 차남 결혼(2012. 5. 12)
- 이세량 동문 자녀 결혼(2012. 6. 10)

## ■승진

- 최철암 동문 (주)우리파이낸셜 부사장 선임
- 박건현 동문 제19대 한국백화점협회 회장 취임
- 남 식 동문 Posco-Vietnam(냉면 강판 부문) 법인장 유임
- 배청현 동문 Posco-VST(Stainless 강판 부문) 법인장 신규 선임
- 김치현 동문 롯데쇼핑 부사장 승진
- 금문수 동문 (사)한국자유예술인협회 상임위원장 취임

## ■개업

- 김명계 동문 포항에 관세사 사무실 개소(포항시 북구 학산동 93-1 학산새마을금고 2층)
- 양희수 동문 (주)KPS 영남지사장(대구 달서구 송현1동 195 중흥빌딩 3층)

## ■출간



- 이우상 동문 《그래도 꿈꾸는 청춘》 출간

## ■부고

- 이상곤 동문 모친상(2011. 12. 30)

- 박상준 동문 본인상(2012. 1. 9)
- 신재웅 동문 장인상(2012. 1. 9)
- 이영택 동문 부친상(2012. 2. 1)
- 이광원 동문 장인상(2012. 3. 11)
- 심원필 동문 모친상(2012. 3. 21)
- 최영호 동문 모친상(2012. 4. 15)
- 최치식 동문 모친상(2012. 4. 16)
- 윤흥근 동문 모친상(2012. 4. 22)
- 정태연 동문 본인상(2012. 4. 26)
- 이창재 동문 모친상(2012. 5. 9)
- 안해욱 동문 본인상(2012. 6. 4)
- 안순필 동문 부인상(2012. 6. 7)



## 제 62 회

### ■ 백봉산우회

지난 1월 2일에 10년 동안 백봉을 산행 목표로 삼고, 기존 산우회를 '백봉산우회'로 개칭하여 1월 4일 첫 일봉 산행을 하였다.

- 백봉산우회 결성  
회장 : 김철봉  
총무 : 김난구  
등반대장 : 배한수  
회원 총 72명

#### • 백봉산우회 등반 일정

- 1봉 : 1월 4일 대덕봉(참가 인원 : 23명)
- 2봉 : 2월 5일 포항 운제산(참가 인원 : 28명)
- 3봉 : 3월 10일 시산재 및 삼성산(참가 인원 : 40명)
- 4봉 : 4월 1일 조계산(참가 인원 : 20명)
- 5봉 : 5월 12일 앞산 달비골(참가 인원 : 32명)
- 6봉 : 6월 3일 바래봉(참가 인원 : 12명)

### ■ 행사

- 계성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62회 동기이사회 (2012. 2. 10)
- 계성 62회 동기회 구미·김천지부 결성(회장 : 정형희, 회원 총 16명 / 2012. 2. 16)
- 정기이사회(두류해물탕, 참석 인원 38명 / 2012. 3. 30)
- 총동창회 기별 등반대회 참가(OB팀 우승, 참가인원 : 27명 / 2012. 5. 20)
- 재경가족체육대회 참가(참가 인원 : 34명 / 2012. 6. 6)

### ■ 동정

- 박은수 동문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 장석구 동문 충청지방 우정청장 취임
- 이현 동문 재경 영남대 상대 동창회장 취임 / 영상아카데미 경영인상 수상
- 김재호 동문 진로양조(주) 대표이사 취임
- 권혁철 동문 국방대학원 교수 임용
- 배은수 동문 국민연금 영천지사장 영전
- 정하황 동문 한국전력 대외협력실장 영전
- 이유식 동문 한국전력 여주지사장 영전
- 권태우 동문 극동대학교 태양광공학과 교수 임용
- 전용환 동문 포스코건설 베트남 호치민 현장 소장
- 박해주 동문 대구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영전

### ■ 경사

- 장석구 동문 장녀 결혼(2012. 1. 14)
- 임여안 동문 장남 결혼(2012. 1. 14)
- 권혁철 동문 장남 결혼(2012. 4. 7)
- 금태연 동문 장녀 결혼(2012. 4. 21)
- 우영철 동문 차녀 결혼(2012. 4. 21)
- 손규식 동문 장남 결혼(2012. 5. 12)
- 권혁도 동문 장남 결혼(2012. 6. 2)
- 나영수 동문 장남 결혼(2012. 6. 9)
- 김태엽 동문 장녀 결혼(2012. 6. 10)
- 손병복 동문 차녀 결혼(2012. 6. 16)
- 이종석 동문 차남 결혼(2012. 6. 16)

### ■ 부고

- 박성립 동문 본인상(2012. 2. 6)
- 도규호 동문 모친상(2012. 2. 7)
- 신진희 동문 장인상(2012. 4. 19)
- 이종석 동문 빙모상(2012. 4. 22)
- 강구현 동문 부친상(2012. 4. 29)
- 이상선 동문 부친상(2012. 5. 6)
- 공영찬 동문 모친상(2012. 6. 6)
- 노강석 동문 장모상(2012. 6. 9)



## 제 63 회

### ■ 김기억 동기회장 평리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선

김기억 63동기 회장이 지난 1월 27일 여러 동기들의 성원에 힘입어 평리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재선되었다.



## ■최상록 동기 농협은행 대구본부장으로 영전

농협중앙회가 금융 부문을 독립시키고 금융 지주 회사를 설립하여 2012년 3월 2일자로 최상록 동기가 농협은행 대구본부장(대구시 중동 회망로 124번지)으로 영전하였다.

## ■이한성 동기 국회의원 재선

이한성 동기가 지난 4월 11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현역 문경 시장을 사퇴하면서까지 경쟁에 뛰어든 상대 후보를 10퍼센트 이상의 표차로 누르고 문경·예천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다.

## ■5/5 등반행사

전국 각지에 있는 63동기들과 그 가족들이 1년에 한번 등산을 같이하며 그간의 화포를 푸는 5/5등반행사를 지난 5월 5일에 무사히 마쳤다. 김기억 동기 회장, 서호영 서울지부 회장, 박경렬 대전지부 회장을 비롯하여 대구 46명, 대전 5명, 서울 10명 등 총 61명이 대전 계족산에서 맨발 산행 마치고, 인근 송림농장 가든에서 오리 요리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가진 후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 ■동정

- 김창수 동문 CBS부산방송 본부장으로 발령(근무 중)

## ■경사

- 이영목 동문 자녀 결혼(2012. 4. 7)



## 제 64 회

## ■행사

- 신년회(2012. 2. 24)
- 안종범 동문(성균관대 경제학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2012. 4. 11)
- 64축우회, 대구광역시장배 풋살대회 장년부(40~50대) 출전(2012. 4. 15)
- 이호성 동문(영남이공대 총장) 동기 초청 야유회(2012. 5. 25)
- 손중배 동문((주)유레카 대표이사) 창사 25주년(2012. 6. 1)

## ■동정

- 이병환 동문 경상북도 비서실장, 국장급(3급) 승진

## ■경사

- 조권섭 동문 장녀 결혼(2012. 3. 31)
- 채용길 동문 장남 결혼(2012. 5. 17)

## ■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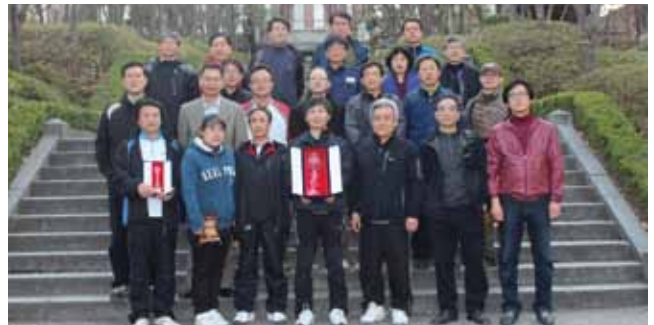
- 도종래 동문 부친상(2012. 1. 5)
- 강규원 동문 부친상(2012. 2. 1)
- 조정환 동문 부친상(2012. 4. 4)



## 제 65 회

## ■신춘회 및 이사회 개최

65동기회(회장 나건연)에서는 지난 3월 31일 토요일에 모교 강당에서 기존 신년회를 대신해 친선 족구 시합을 개최하고, 인근 엘디스호텔에서 이사회 겸 신춘회를 가졌다. 이날 친선 족구 시합에는 동기와 그 가족 등을 포함하여 40여 명이 참석하였고, 이사회에서는 금년 예산안 및 행사 계획 등을 논의하며, 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하였다.



## ■재경 계성가족체육대회 참석

지난 6월 6일 국회 소운동장에서 열린 재경 계성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구에서는 28인승 리무진 버스를 대절하여 25명의 동기들이 서울로 출발했다. 이로써 65동기 60여 명 이상이 모여서 단합하며 저력을 과시하였다. 이날 대구 동기들은 귀경하면서 문경 인근 자연산 매운탕집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동정

- 이동준 동문 대구시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영전



# 기/별/소/식

## ■부고

- 구 정 동문 부친상(2012. 1. 11)
- 김윤경 동문 모친상(2012. 1. 23)
- 서한손 동문 부친상(2012. 2. 10)
- 황성주 동문 장모상(2012. 2. 10)
- 최희송 동문 부친상(2012. 2. 17)
- 김달현 동문 부친상(2012. 3. 4)
- 이원기 동문 모친상(2012. 3. 9)
- 임병조 동문 부친상(2012. 3. 14)
- 조동호 동문 빙모상(2012. 3. 19)
- 최장훈 동문 본인상(2012. 4. 12)
- 이상식 동문 빙모상(2012. 4. 23)
- 권양환 동문 장모상(2012. 5. 20)



## 제 69 회

## ■동기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2012. 10. 13~14일
- 장소 : 문경세재 리조트

## ■동정

- 박종문 동문 서부경찰서장으로 취임



## 제 70 회

## ■동기 야유회 및 등반 행사



70회 동기회(회장 김진혁)는 지난 4월 14일(토)부터 15일(일)까지 1박 2일간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동기 및 부인들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 및 등반 행사를 가졌다.

당일 오후 식당에 모여서 족구 대회를 마치고, 오리불고기를 주 메뉴로 한 식사 및 음주 등을 즐겼다. 이후 자연휴양림 숙소로 이동하여 윗놀이와 함께 다양한 상품을 나눠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

냈다. 이날 족구 대회 및 윗놀이에서는 모두 구미 팀이 승리하였다.

다음 날에는 비슬산 대견사지, 참꽃 군락지를 등반하여 준비한 김밥으로 식사를 한 뒤 하산하였고, 다음에 더욱더 알찬 행사를 기약하며 동기 야유회 및 등반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 ■부고

- 우무정 동문 모친상(2012. 1. 4)
- 이동희 동문 모친상(2012. 2. 3)
- 임채희 동문 모친상(2012. 2. 21)
- 김수용 동문 모친상(2012. 3. 27)
- 김도철 동문 모친상(2012. 3. 30)
- 김기창 동문 부친상(2012. 4. 21)
- 김병희 동문 빙모상(2012. 4. 27)
- 이익동 동문 장모님상(2012. 5. 2)
- 장준호 동문 장인상(2012. 5. 3)
- 곽은호 동문 모친상(2012. 5. 18)
- 전중문 동문 부친상(2012. 6. 5)
- 곽동진 동문 장인상(2012. 6. 9)
- 문종규 동문 모친상(2012. 6. 18)



## 제 71 회

## ■지리산 종주 산행

- 일시 : 2012. 8. 3~8. 5(2박 3일)

## ■동정

- 정유진 동문(화신테크 대표) 2012년 대구시 스타기업 선정  
2012년 대구시 스타기업으로는 기계·자동차 산업 군에서 9개, 섬유·화학 3개, 전자·통신 3개, 유통·지식서비스 1개 기업이 각각 선정됐다.
- 이대형 동문이 금번 총경으로 승진하여 교육을 끝내고 7월 3일부터 봉화경찰서장으로 부임하였다. 아울러 71회에는 작년 청송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용배 동문과 더불어 두 명의 현직 경찰서장이 탄생하였다.



## 제 72 회

## ■상반기 이사회

- 일시 : 2월 24
- 장소 : 수성구 소재 등푸른 생선  
윤성용 회장, 최진욱 수석부회장, 고문 9명, 부회장 21명, 이

사 23명, 감사 1명, 총무 3명으로 총 60명의 임원단이 선출되었다.

### ■3학년 8반 반창회

- 일시 : 5월 11일
- 장소 : 해남횃집

### ■3학년 5반 반창회

- 일시 : 5월 12일
- 장소 : 안압정
- 회장 김종혁, 총무 노태진

### ■1박 2일 가족 캠프

- 일시 : 5월 26~27일
- 장소 : 충북 제천 한수면 소재 월악펜션빌
- 총동기회와 재경동기회가 주관하여 가족 캠프를 개최하였다.



## 제 74 회

### ■홈커밍데이 일정 확정

1987년 모교를 졸업하고, 만 25주년을 맞는 74회 동기생들은 오는 10월 20일(토)에 모교 방문 행사인 '홈커밍데이'를 실시한다.

특히 4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저녁 6시부터 열리는 저녁 만찬 행사에는 은사님들을 모시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기생들이 어울리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가수 박상철, 박주희 등이 출연하며, 대형 모니터와 조명, 음향 시설 등을 설치하여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 연락 : 74회 홈커밍데이 준비위원회
- 회장 한영해(010-3518-4223), 수석 총무 서창욱(010-5118-1233)

- 서울지부 회장 조선규(010-9017-7866), 수석 총무 배수진(010-6360-8849)
- 네이버 카페 계성고 74회 동기회(cafe.naver.com/ks74friend)



## 제 75 회



내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앞둔 75회 동기들이 적극적으로 총동창회 행사에 참여하여 등반대회 Y.B 2등, 테니스대회 Y.B 3등의 성적을 거두었다. 아울러 지난 6월 6일(수)에 있었던 재경동창체육대회에서는 재경동기회장 박준현과 동기회장 우희경이 협력하여 행사에 참여한지 10년 만에 Y.B 종합 우승을 이루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한 재경 동기들과 버스까지 대동하여 참여한 대구 동기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올 가을에 있을 가족체육대회의 전망을 아주 밝게 하였다.

우희경 회장은 내년 홈커밍데이 행사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도 하반기에는 현재 활성화된 '산우회'를 중심으로 소모임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며, 열성을 다하고 있다.

### ■부고

- 이문형 동문 부친상(2012. 5. 6)



## 제 77 회

### ■동정

- 김영민·손충환 동문 변호사 법무법인 참길 사무실 개업  
법인 업무 개시일 : 2012. 2. 16  
사무실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75-4 우정법원빌딩 1층  
전화 : 053-756-2600, 팩스 053-756-2607  
개업소연 : 2012. 3. 16(금) 오후 6시부터



## 재 경 지 부

### ■ 행사

- **2월 13일** : 재경계성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상록회관).  
윤동한(52) 회장 외 1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한명로(54) 동문이 제13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되  
었다.
- **3월 12일** : 원로 초청 오찬 모임(명동 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  
이규동(31), 박성대(38), 김봉운(40), 김용태(41), 조준제(47),  
반충남(48), 이시원(50), 박창달(51), 박하규(51), 신상민(52), 유운  
철(52), 윤동한(52) 동문 등과 김태동 재단이사장 및 김정길(56)  
총동창회 사무처장, 한명로 재경회장 등 사무국 인원 참석.



- **3월 20일** : 산우회 시산제 행사에 장상헌 감사 및 사무국 인  
원 등 80여 동문 참석(남한산성) / 상반기 지원금 일백만 원  
(1,000,000) 전달.



- **3월 22일** : 계우회 Tee-Off(레이크사이드CC)  
계우회 회원 참석.
- **4월 5일** : 1차 기별 회장단(55, 56, 57회) 점심 모임.  
장충동 대장금 한정식(기별 2명 + 한명로 회장 외 집행부)

- **4월 12일** : 2차 기별 회장단(58, 59, 60회) 점심 모임.  
장충동 대장금 한정식(기별 2명 + 한명로 회장 외 집행부)
- **4월 24일** : 2012년 재경 계성가족친선체육대회 관련 조추첨  
모임(논현동 취영루).  
한명로 회장 외 회장단과 기별 회장, 동문 70여 명이 참석하  
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신임 인사 - 김병일(56) 수석 부회  
장, 서만근(60) 조직관리 부회장, 최철암(61) 홍보담당부회장,  
이재학(65) 미래전략 부회장 및 장상헌(60) 감사.



- **4월 26일** : 3차 기별 회장단(61, 62, 63회) 점심 모임.  
장충동 대장금 한정식(기별 2명 + 한명로 회장 외 집행부)
- **5월 8일** : 재경계성동창회 사무실 이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1 삼호물산빌딩 A동 1901호
- **5월 15일** : 제6차 재경 계성조찬포럼(남산한국자유총연맹 2  
층 사인홀).  
메리츠자산운용 사장 강면욱(65) 감사 초청 "개인자산 펀드  
운용의 장단점"에 관한 주제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성  
황리에 진행되었다.



- **6월 6일** : 제28회 재경 계성가족친선체육대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잔디구장 / 한명로 회장, 김태동 재단  
이사장, 김재현 교장, 김용태 선배, 이시원 선배, 윤동한 선배,  
김웅길 선배, 조준제 선배 등 1,600여 명의 동문 참석.





• 6월 14일 : 4차 기별 회장단(64, 65, 66회) 점심 모임.  
장충동 대장금 한정식(기별 2명 + 한명로 회장 외 집행부)

## ■ 경조사

- 1월 14일 : 김후석(55) 부회장 자녀 결혼 축하(화환)
- 3월 3일 : 박상용(54) 자문 자녀 결혼 축하(화환)
- 4월 21일 : 한명로(54) 회장 장모상(근조)
- 5월 1일 : 이윤희(63) 감사 부친상(근조)
- 6월 10일 : 조준제(47) 고문 장인상(근조)
- 6월 16일 : 손병복(62) 부회장 자녀 결혼 축하(화환)



## 재 부 지 부

## ■ 5월 12일 재부동창회 체육대회 열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앞 다투어 찬조금, 회장 노래 일발



지난 5월12일 재부동창회(회장 오진일) 체육대회가 열렸다. 56회 10명, 61회 11명, 62회 9명, 63회 7명, 67회 6명 등 모두 43명이 참석하였다. 예전에 비해 참가 동문 수는 적지만 분위기는 너무 유쾌하고 흥겨웠다.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을 빌려 온 동문 가족이 모두 모여 성대

한 잔치를 했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였고, 선배님들도 다 수 은퇴하였으며, 새로운 후배 기수들은 부산에 별로 살지 않아서 67회 기수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실에 견주면 참가 동문 수가 적은 것도 아니었다. 아울러 참가상은 가장 많이 참석한 61회가 차지했다.

범어사 입구 주차장에서 집결하고, 참석 동문들의 도착 시간이 각각 달라 1진이 먼저 오전 10시 20분경 대회 장소로 출발하였고, 이후 나머지 동문들이 출발하였다. 점심에는 산성마을 장가네식당에서 오진일 회장의 인사 말씀과 건배 제의로 오찬이 시작되었다. 아울러 오진일 회장이 술선수범하여 노래 솜씨를 뽐냈고, 각 기수별 대표, 사모님들의 께꼬리 같은 노래가 울려 퍼졌다.

다시 행사에서는 경품 추첨 후 곧바로 족구장에 가서 61, 62회 팀과 56, 63, 67회 연합 팀이 3전 2선승제의 게임을 벌였다. 결국 61, 62회 팀이 2:1로 이겨서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고, 패한 팀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연호(63회) 총무는 “젊은 후배들이 나이 든 형님들께 양보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오진일 회장이 200만 원을 기부했고, 56회가 200만 원을 찬조했다. 또 54회, 61회, 62회, 63회, 67회 동문들이 각각 30만 원씩 보탬다. 김인식(67회) 동문은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50만 원 상당의 경품으로 제공했다. 언제나처럼 교가 제창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내내 화기애애하고 재미있었던 재부동창회 체육대회였다.



## 재경산지부

- 경산 계성농장 전경(경산시 계양동 소재)



- 경산계성청년회 족구한마당 : 6월 16일 임당초등학교 운동장 (22명 참가) 성황리에 종료.

# 지/부/별/소/식



## 재인천지부



인천계성동문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에 강화 고려산 등반을 마치고 식사를 하며 인천계성동문회 카페 개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결과, 참석자 8명이 전원 일치로 찬성하여 미흡하나마 카페를 개설하였다. 인천계성 동문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

홈페이지 주소 (<http://cafe.daum.net/KeiSungInchon>)



## 재포항지부

### ■ 2012 재포계성 동문가족 체육대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재포계성 동문가족 체육대회가 지난 6월 6일 오전 10시에 대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김현호(43회), 한태철(45회), 최승태(46회), 이성환, 정재룡 동문 및 동문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아울러 이날 개회식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감사 보고를 마치고, 권영철(61회) 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홍성창(65회) 동문의 진행으로 배구, 족구, 윷놀이 등을 하며 동문 및 동문가족들의 즐거운 한마당이 벌어졌다. 행사장 곳곳에서 각 기수별 동문 가족들이 용기종기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모습은 너무나 인상 깊었다.

끝으로 경품 추첨과 더불어 교가를 제창하며 행사를 마쳤고, 깔끔하게 뒷정리하는 계성인들의 모습에서 긍지가 느껴졌다. 다음 해를 기약하며 아쉽게 작별했지만 개교 106주년을 기념하고 올해로 20회를 맞은 재포계성 동문가족 체육대회는 우리 동문들의 열정을 아우르며 후배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 ■ 동정

- 김목진(66회) 동문, 대구지검 조사과 영전(2012. 1. 2)
- 손승(68회) 동문, 장인상(2012. 1. 28)
- 재포계성 동문 임원단 신년교례회(2012. 2. 13)
- 박문식(48회) 동문, 모친상(오천제일장례식장) (2012. 2. 20)
- 김채해(67회) 동문, 포항지원장 부임(2012. 2. 27)
- 정구택(58회) 동문 오천포은중학교 초대 교장 취임(2012. 3. 2)
- 류필수(60회) 동문 기계고등학교 교장 부임(2012. 3. 2)
- 김중윤(67회) 동문 기북중학교 교감 부임(2012. 3. 2)
- 임종문(63회) 사무국장 모친상(2012. 3. 27)
- 정태연(61회) 동문 별세(2012. 4. 27)



## 재제천·단양지부







2012년 임진년을 맞아 제천·단양지부 첫 모임을 가졌다.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식사하며 기분 좋게 새해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제천·단양지부 고문이신 추병엽, 홍인식 선배님께서 변함없이 건강하셔서 너무 좋았다. 전국의 모든 동문 선배님들과 후배들 올 한 해도 건강하세요!



## 재뉴욕지부

### ■ 2012 계성뉴욕지부 आयु회



- 일시 : 2012년 5월 28일(Memorial Day) 11:00am-6:30pm
- 장소 : NY State Rockland Park, Parking Lot #2
- 참석자 : 김재환 부부(42회), 김창동(43회), 서삼덕 부부(47회), 박치경 부부(48회), 송수호 부부(48회), 김지홍 부부(49회), 안영근(49회), 정대식 부부(49회), 정인국(55회), 서희수 부부(56회), 박동화 부부(57회), 박창현(62회), 박무희 부부(68회), 박노태 부부(68회), 장재동 부부(74회)
- ※ 15동문 30가족(자녀 포함)

연일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이어졌지만 आयु회 당일은 기온도 알맞고 날씨가 화창하여 기쁨이 더했다. 우선 총무단이 일찍 공원에 도착하여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최상의 전경과 아우르는 최적의 조건에서 2012년 계성뉴욕지부 आयु회가 시작되었다.

정인국(55회) 동문의 기도와 찬송 인도와 함께 간단한 설교를 마친 후 바비큐파티가 열렸다. 총무단이 준비한 음식과 음료수를 먹었고, 능숙하게 고기 굽는 회장님과 정성스럽게 돕는 총무단 사모님들 덕분에 푸짐한 점심을 즐겼다.

식사 후에는 서삼덕(47회) 동문의 주도로 즉석 모금을 실시하였고, 일금 \$960의 찬조금 및 회비가 모아졌다. 김재환(42회) 동문이 기부금 \$300, 박동화(57회) 동문이 찬조금 \$100를 냈고, 김창동(43회) 동문이 과일 20상자를 기증하는 등 여러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풍성한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박창현 現 회장이 발의하여 차기 회장단 선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내년부터는 차기 회장이 행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आयु회에서 前 회장이기도 한 서삼덕(47회) 동문은 특유의 만담으로 참석자들을 즐겁게 했고, 동문들이 정담을 나누면서 가족들을 소개한 것은 색다른 의미를 가지게 했다. 특별히 정인국(55회) 동문의 장남은 김이규(56회) 동문의 여식과 지난 5월 25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즐겁게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다 되었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인사하며 아쉽지만 आयु회를 마무리했다. 고가를 힘껏 제창하면서 내년 모임을 기약했고, 귀가할 때는 각자 김창동(43회) 동문이 준비한 과일 한 상자씩을 품에 안았다.







재포계성동창회장  
권영철 (61회)

## 하나님 은총 속에 승승장구하는 계성을 꿈꾸어 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2 재포계성동창회장을 맡게 된 61회 졸업생 권영철입니다.

이곳 포항 지역에는 약 180여 명의 동문이 계시며 1974년 이상일(29회) 선배님이 초대 동창회장을 맡으면서 재포계성동창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고, 오늘까지 13대 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배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이끌어주심, 후배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동참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는 전통적으로 매년 6월 6일에 재포동창 가족 체육대회 및 정기 총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김현호(43회) 선배님(대동고 이사장)께서 기꺼이 해당 학교 실내 체육관과 운동장 사용을 허락해주셔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매년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 행사를 치를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재포계성동창회는 포항 지역의 어느 동문 단체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선후배 간 유대 관계가 끈끈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크고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선배님들 덕택이라고 굳게 믿으며, 저희 후배들은 계성인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전통들을 잘 계승하고 계성총동창회 발전과 선후배 간 사랑의 유대 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지도록 재포계성동창회장으로서 열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은총 속에 승승장구하는 계성을 꿈꾸어 봅니다.



## 계성목장회



### 제2회 계성목장회 정기총회 최태조(48회) 회장 취임

- 일시 : 2012. 3. 22(목) 오후 6시
- 장소 : 계성교회

1부 만찬 만찬 기도 - 박도순(63회) 목사

2부 예배 인도 - 박 실(48회) 장로

신앙 고백

찬송 :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 : 박계인(50회) 목사

성경봉독 : 이상민(60회) 목사 - 이사야 43:1~3

설교 : 너는 내 것이라

헌금 : 다같이

찬송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광고 : 이창식(49회) 총무

축도 : 재경목장회 박재천(50회) 회장

3부 회무처리 사회 - 최태조 회장, 축사 - 이병구 총동창회장

회장 인사 : 최태조 목사

회칙 통과

임원 선출 : 1회 임원 전원 유임

경과 보고 : 총무

감사 보고 : 감사

新 안건 토의 : 신임 임원에게 일임

교가 제창으로 저녁 8시 폐회

회장 최태조

총무 이창식, 박현규

### 재경계성목장회,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2013년 체제와 중복 문제'를 주제로 모여

서울에 거주하는 계성 출신 목사와 장로 30여 명이 지난 6월 21일 저녁 6시에 서울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관에서 '창학 정신'과 '2013년 체제와 중복 문제'를 주제로 모였다.

1부는 예배 순서는 박재천 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신앙 고백 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함께 불렀다. 아울러 김창수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였고, 조환기 목사가 특별히 아코디언 연주를 하였다. 대길교회 박현식 목사가 '창학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설교 후 이병구 총동창회장의 인사와 목장회에서 가장



고령이신 장성훈(23회) 목사님의 축도가 있었다.

2부는 김영문 장로(前 영남대 행정대학장)의 '2013년 체제와 중복 문제'에 대한 강의를 있었고, 계성목장회는 오는 9월 3일 저녁 6시 주님의교회(박원호 목사 시무)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계성목장회는 현재 회장 박재천(50회) 목사, 부회장 박현식(57회) 목사, 김영문(50회) 장로, 총무 김은동(72회) 목사, 김창수(54회) 장로가 수고하고 있다.



## 계성목우회

### 2012 계성 재경목우회 총회 김성봉(54회) 목사 신임 회장 피선

- 일시 : 2012. 5. 10. 목요일

- 장소 : 서울 서현교회

#### • 1부 : 예배

박재천(50회) 목사의 사회로 회장이 설교하고, 김종열 목사(45회)의 축도로써 예배를 마쳤다.

#### • 2부 : 총회

서울 서현교회 김경원 목사(54회)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총동창회 이병구 회장이 인사 및 학교와 총동창회에 대한 상황을 보고한 다음 교가를 제창하고 마쳤다.

#### 〈조 직〉

고 문 : 김종열 목사(45회)  
박재천 목사(50회)

회 장 : 김경원 목사(54회)

부 회 장 : 박현식 목사(57회)

총 무 : 김성봉 목사(59회)

서 기 : 김정두 목사(71회)

협동총무 : 권순웅 목사(6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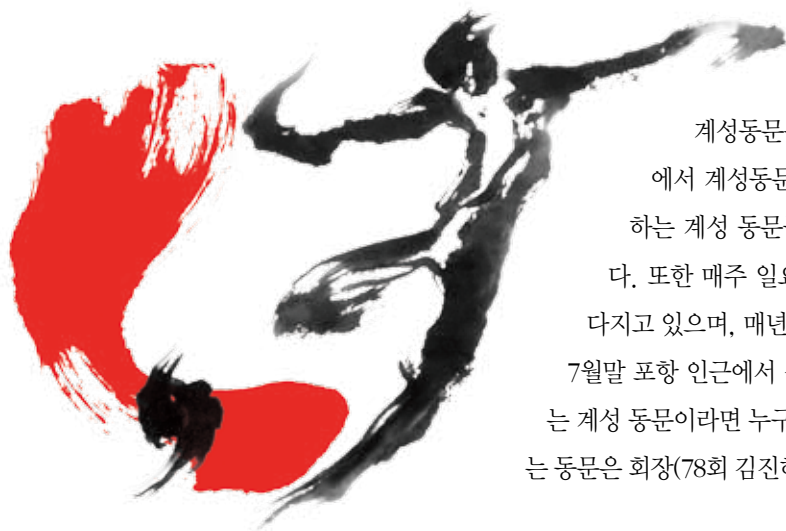
김은동 목사(72회)

#### 〈사업계획〉

1. 연 1회 모교 방문
2. 재학생 중 신앙이 좋은 학생에게 교목실에서 추천하여 장학금을 주고, 모교 졸업 후 목사 지망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하다.
3. 재학생과 동창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기로 하다.
4. 계성 설립 정신이자 교훈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언 1:7)"를 위해 기도하기로 하였다.



## 계성동문축구회



계성동문축구회는 창단 3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8일 강변축구장에서 계성동문축구회(계성OB) 및 계성FC, 계성Utd. 회원 등 축구를 사랑하는 계성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전, 축구 경기를 통하여 동문회원들의 건강과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매년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합숙훈련을 해오고 있다. 올해도 7월말 포항 인근에서 실시할 예정이니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축구를 사랑하는 계성 동문이라면 누구나 계성동문축구회(계성OB) 회원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동문은 회장(78회 김진하 010-4254-4656)에게 연락 부탁한다.



계성동문축구회



72회 박명훈 회원의 초청으로 청도 풍각중학교에서



강변축구장에서



작년 합숙훈련 기념촬영



# 모교 방문, 35년 만의

사춘기 저항의 까까머리 짓누르던 책가방  
 들쳐 메고 드나들던, 서른다섯 해 지각생  
 승용차를 몰고 교정의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매섭던 선도부장 눈초리가 보닛 위로 얹히고  
 교실 오르내리던 돌층계 위에서 줄던 시간  
 일제히 반기며 환하게 날아오릅니다  
 기왓장 어깨 위로 차곡이 쌓인 두께 두툼한 추억  
 켜켜이 빛바랜 손 흔들며 인사를 합니다  
 담쟁이 엮은 붉은 벽돌 대강당이  
 급히 일어서다 엉덩방아를 찧습니다  
 설익은 절망과 여린 희망의 경계  
 교정 도처에서 수많은 손들이 솟아나며  
 잊고 있던 성적표를 들고 키들키들 걸어 나옵니다  
 구름 사이로 머리칼 하얀 햇살이, 으흠  
 교장선생님의 구부정한 헛기침 소리를 냅니다  
 밀동이 튼실해진 은행나무 그늘 열중쉬어 하고  
 노랗게 떠난 무수한 입들이 말을 걸어 옵니다  
 담장 한켠으로 비껴선 화단에서  
 오만 가지 빛깔의 백열전구가 환희 매달립니다  
 시간을 한참 거스르는 아득한 먼지 회오리  
 바람이 운동장 철봉 위로 물구나무를 섭니다  
 애잔한 밀불이 담긴 재가 따뜻하게 느껴지며  
 내 몸속으로 갑자기 무수한 벌레가 기어잡니다  
 은밀한 기억의 꼬트머리 심포 하나 들어왔고  
 눈물샘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교실 창문마다 꿈의 아지랑이 피어나며  
 가늘고 긴 혀를 내밀어 내 목선을 간질입니다  
 한동안 내 몸을 휘감는 뜨거운 공기  
 기지개를 켜며 모공이 환해집니다  
 연단 뒤로 숨은 슬픈 기쁨이 귓가를 속살거립니다  
 경중 키가 자란 몸속의 게으름, 뒤늦게  
 온기로 등불을 켜고 자근자근 책을 씹습니다  
 한참 늦은 지각에 어김없이 양손 들고 벌서야 할  
 모교 방문, 서른다섯 해 만의



김 병 해(62회) 동문

『서정시학』, 『문학예술』 신인상으로 등단·서정시학회 동인

96세 대선배 장성훈(23회) 원로목사

# “지식의 근본을 알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덩달아 겉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모교가 ‘계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생명을 육성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장성훈(23회) 선배님은 무려 연세가 96세이다. 더군다나 장 선배님의 선친께서도 우리 계성인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장 선배님은 선친 張來周(00회) 대선배님의 장남으로서 경북 안동시 금소동에서 출생했으며, 이때 그 선친께서는 금소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계셨다.

장 선배님은 여섯 살 때 대구로 이사를 와서 지금은 폐교된 희도초등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 계성중학교와 대구 사범학교 강습과에서 수학하여 이후 12년간 교사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생의 대전환을 맞으며, 대구 영남신학교와 서울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12년간 전도사로 활동하였다. 아울러 26년을 목사로 헌신하고, 70세에 정년하였으며, 현재 원로목사회에 적을 두고 신앙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지금도 세상 부귀와는 관계없이 살아가시는 장 선배님께서는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린도후서 4장 16절)”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꼭 당부하셨다.

또한 “내 속사람은 70세 이후 더 크게 강건해졌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으며 겉사람까지도 병이 없이 건강하다.”면서 “건강공단에서 내 신체 오장육부도 A등급으로 판정할 만큼 병원 한 번 안가고 산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끝으로 장 선배님의 최근 사진과 육필 편지를 동창회보에 게재한다. 우리 모교와 총동창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대선배님의 그 고귀한 삶의 향기를 계성인 모두가 강렬하게 느껴보자.

**12년 교사, 12년 전도사, 26년 목사, 26년 원로목사**  
**우리 모교가 계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생명력을 갖기를**



安東

① 出生地는 경북 안동시 금소동 Mannatech.  
계성출신인 父 張來南 氏의 長男으로 출생  
후친이 금소초등학교 교사로 금소향에 이리  
6세에 대구로 이사하시 최초등학교와  
계성중학교와 대구사범정당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12학년과 대구 영남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뒤 1954년  
12학년과 1954년 26학년과 정예 1954년  
1954년 96세인 지금까지 90세  
26년과 1954년 96세인 지금의 근황은  
최초로 사회에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후손을 교육에 살고 세상사들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음이다

② 동생들 사이에 둘러 주고 싶은 말씀은 첫째 남동생  
인 것이 지식의 근원이 된 결사라는 후배  
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 것을  
4216에 말씀하신 나의 후손들을 90기후  
에 더 크게 발전시키고 지금을 발전하고  
있어 결사라는 뜻은 無病의 강건에 49  
신체 1954년 96세인 지금의 근황은  
공산에 한정을 하고 1954년 96세인 지금  
살고 있음이다

③ 母校인 고려대학교에 있다면 학생회나  
이웃과 함께 지극한 사랑으로 봉사하는 기관  
이 되기 위하여 노력함이다



인도에 KOR-IN신학교 개교한 이기섭(38회) 동문

# “인도 12억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기도해주십시오.”

합동 측 서울대길교회 원로장로인 이기섭 동문(38회)은 1991년 2월 27일 GMS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되었고, 이후 2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인도와 미얀마에 무려 16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교회 건물만 해도 인도에 73개, 미얀마에 17개가 된다. 아울러 1994년 크리스천 인재 양성을 위해 KOR-IN신학교를 설립했고, 그 설립자가 이기섭 동문인 것이다.

KOR-IN신학교는 부지 1만여 평에 건물 17동, 연건평 1,800평으로, 인도, 네팔, 티베트, 미얀마, 부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몰려온 신학도들이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이 학교 모든 졸업생들은 이기섭 동문이 개척한 현지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게 된다. 이곳에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부속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다. ‘Children Home’이라는 고아원도 함께 운영하며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KOR-IN 가족은 700여 명에 이른다.

“인도에는 전통적으로 카스트제도가 있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도시에서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도마가 순교한 인도는 남인도에 일찍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탓에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로서 아득하기만 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아시아에 전하지 못한 복음이 지구 한 바퀴 돌아 서쪽의 한국 교회를 성장시켰고 인도 복음화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이기섭 동문은 노익장으로서 열변을 토했다.

##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인도는 복음 불모지!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하나님께서 인도 복음화 책임 주시다

“인구 12억에 공용어가 23개나 되는 인도에서는 대부분 영어로 소통합니다. 현재 힌두문화가 깊숙이 젖은 남인도에 복음이 들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있는데, 이 또한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찾는 사람은 많지만 선교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KOR-IN신학교가 유능한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겠습니다.”

KOR-IN신학교는 ‘인도사랑후원 1만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 뜻을 함께 하며 한국 교회의 사랑을 멀리 인도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동문들의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다.

☎ 02-419-0070

☎ 91-81-52-245383(인도)

▶ 후원 예금 계좌

농협 351-0424-8346-23

(예금주 : KOR-IN신학대 운영이사회)





김영주(38회) · 김치훈(43회) 동문

# 두 선배 동문의 따뜻한 만남

## 학창시절 이야기와 흥미 만점의 끝없는 정담 이어져



지난 7월 12일 오후 1시, 대구시 달서구 성서에 소재한 보문옥 한식당에서 김영주(38회) 원로 동문과 김치훈(43회) 원로 동문이 회동하였다. 이날 만남은 서울에 사는 김치훈 원로 동문이 대구에 사는 선배 김영주 원로 동문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두 원로 동문은 서로 가족과 자녀들의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지난 날 알고 지낸 인사들의 근황도 주고받으면서 점심 식사를 곁들인 따뜻한 만남을 가졌다.

### 이전할 계성동산에 신태식 선생 흉상 준비 중인 김영주 동문

중앙정부 고위 관리로 퇴임한 김영주 동문은 이전 예정인 계성학교 新 캠퍼스에 신태식 박사의 흉상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당연히 이에 대한 화제가 이어졌다. “내가 신태식 선생님한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많이 얻어맞았거든. 그게 나중에 내가 외국과 농업 문제 협상을 할 때 큰 도움이 됐지. 어찌 잊을 수 있겠나. 계성을 빛낸 10인 중 한 분이신 선생님을 기리며 미력하지만 新 캠퍼스에 흉상을 기증하려는 거야. 나뿐이 아

니야. 노영하 박사도 박목월 시인의 흉상을 준비하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 38기에서 열 분 다 해버리면 안 되지. 다른 기수들 뒤편 남겨놓아야지. 안 그렇소? 허허허.”

아시아 지역에 의약품과 구호품을 지원하는 국제봉사기구 IAK 대표답게 김치훈 동문은 선배님의 건강을 걱정한다. 그래서 “하루 마늘 세 쪽, 설탕과 크림 안 탄 맨 커피 두 잔, 그리고 포도주 두 잔씩 마시면 만병통치라고 미국의사협회가 발표했





습니다. 선배님께서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커피 마실 때는 커피에 물을 부으면 안 되고 물에 커피를 타야 합니다. 그 래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흔히 아는 것처럼 그 반대로 하면 오히려 해로워요.”라고 당부하였다. 또 “이거 변변찮지만 선배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하며 고급 포도주를 선물하였다.

김영주 동문은 놀라서 “어허, 미안하게 이런 걸! 자네 사위는 잘 계시는가?”라고 물으셨다. 김치훈 동문의 사위는 홍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홍지만 의원의 선친도 제성 43회 동문으로서 장인인 김치훈 동문과 동기다. “요즘 서울에서 혼자 오피스텔 얻어서 사는데 참 힘들어 보입니다. 제 딸과 손자는 성서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사위 자랑도 빼놓지 않으셨다.

“당에서 대변인을 맡겼는데 바로 당 대표한테 달려가서 사양을 했어요. 그렇게 겸양을 갖춘 것을 보니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사위는 영어를 참 잘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영어웅변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어른들도 다 누르고.” 김치훈 동문도 맛장구를 치신다. “맞아요, 사람이 참 건실해 보이더라고.”

#### 북한에 보건소 세우려 방문하고 돌아온 김치훈 동문

김치훈 동문은 근래 두만강 끝 지점에 다녀왔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경계선인 곳에 보건소를 설립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2004년 4월에 북한 용천에서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무려 100만 불 상당의 의약품들을 지원한 단체가 IAK이다. 당시 IAK는 미

국에서 100만 불 상당의 화상 치료약 등을 기증받았는데 특정약품이 그렇게 많이 쓰일 곳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갑자기 북한에서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고에 쓰라고 그 많은 약을 미리 보내신 겁니다. 참 놀라운 역사였지요.” 김치훈 동문은 당시 다른 모든 NGO가 모은 후원 금품이 10만 달러 정도였다고 회고한다. 그만큼 IAK의 활동력은 대단했던 것이다.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는 생각은 단견이에요. 북한 지도부는 나쁘지만 동포들은 그저 불쌍해요. 우리보다 키도 평균 10cm는 작습니다.” 김치훈 동문이 김영주 선배님께 묻는다. “선배님, 38회 기수는 자주 만나십니까? 다들 건강하시고요?” “매주 두 번씩 만나고 있대요. 월요일과 목요일이지.” “아니, 그렇게 자주 만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참석자 수가 적어요. 이젠 나이가 많잖소.”

이날 두 분의 회동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하여 식사 시간이 3시간이 넘도록 길어졌다. 아울러 김정길(56회) 총동창회 사무처장과 정만진(61회) 편집 주간도 동참했는데, 김영주 원로 동문의 학창시절 회고담이 너무나 흥미진진하여 다음 호 회보에 인터뷰를 해주십사 선배님께 요청하였다. 김치훈 원로 동문의 IAK 활동에 대해서는 총동창회 홈페이지의 회보를 검색하여 48호(2008년 6월 16일자)에 나오는 인터뷰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 웃음꽃 만발한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행사



덕담과 당부의 말 잊지 않아...  
4년 뒤에는 더 많은 국회의원 동문이 탄생할 것!



지난 4월에 실시한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동문들을 축하하는 뜻깊은 모임이 6월 20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여러 동문들은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시종일관 환하게 웃었다.

행사는 88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엽(70회) 동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치러졌고,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한 홍의락(60표) 동문과 새누리당 재선 의원인 이한성(63회) 동문이 참석하여 많은 축하와 환영을 받았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인 안종범(64회) 동문은 바쁜 일정상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했다.

김태동 재단 이사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홍의락, 이한성 동문에 대한 소개 후 두 동문이 인사하였다. 아울러 이병구 총동창회장과 박성대 계성장학재단 이사장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김용태 前 장관의 건배 제의 이후 두 동문은 각각 살아온 이력과 소회를 피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선배들은 두 동문에게 덕담과 당부의 말을 하였다. 처음에는 박성대 前 회장이 원로대표 발언으로 끝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원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었다. 신성택 前 대법관, 장영철 前 장관, 정창화 5선 국회의원, 유윤철 총동창회 부회장, 조준제 前 재경동창회장, 한명로 재경동창회장, 김병일 재경동창회 수석 부회장의 덕담이 차근차근 이어지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홍의락 의원과 동기인 박정찬 연합뉴스 사장의 찬조 발언과 행사 장소를 제공한 김재엽 동문의 인사 겸 근황 소개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이병구 총동창회장이 당선자들에게 선사하고, 김태동 재단 이사장도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행사를 마칠 무렵에는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도저히 교가 제창을 할 형편이 아니었는데, 조준제 前 재경동창회장이 “그래도 교가는 불러야 해!”라며 우렁찬 음성으로 외쳤다. 비록 교가를 부르진 못했지만 참석한 동문들은 한마음으로 교가를 부르고 싶었고, “4년 뒤에는 더 많은 당선자가 모교를 빛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그때까지 장관동문도 배출해야지.”하며 아쉬운 인사를 나누었다.



편집자 주 : 택시 파업으로 인해 교통이 불편했던 이날, 대구에서 상경한 일행들을 위해 김봉은 대선배님께서 서울역까지 마중을 나오시며, 여유시간을 활용해 한강의 구름카페까지 구경할 기회를 만들어주셨다. 뿐만 아니라 행사를 마친 후 다시 서울역까지 태워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김정길(56회) 총동창회 사무처장)





민주당 국회의원 홍의락(60회) 동문

# “모교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후보는 전국 유효표 70퍼센트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대구시민들은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 당시 대구에서는 야당 후보 조봉암이 72퍼센트 이상의 표를 찍어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2007년 대통령 선거는 그때와 정반대 상황으로, 대구시민들은 민주당 후보에게 단 6퍼센트만 표를 주었다. 아울러 2012년 총선에서도 대구경북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민주당 당선자는 없었다. 그러나 홍의락(60회) 동문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금배지를 달았다.

대구경북에서 기선을 잡기 어려운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당히 선출되어 국회에 입성한 홍 동문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산수유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는 5남매 중 장남이었다.

동양초등학교와 계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무역회사에 재직하던 중 독일인 친구의 제안에 따라 중소기업 회사를 차려 자립했다. 홍 동문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활동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홍 동문은 현재 국회 개원 준비와 보좌진을 구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아울러 개원 직후부터 활발하고 전문성 있게 움직이며, 의정활동의 내실을 최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경황이 없다.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존경하는 신용수 선생님과 김학섭 선생님이 떠오른다. 또한 잊지 못할 추억으로는 수양회에 관한 것인데, 수업을 사흘간 중단했기 때문에 마음껏 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이다.

공부를 안 하고 즐겼던 수양회의 추억  
여가 시간에는 등산과 바둑, 즐겨 읽는 책은 성경

그는 아내와의 슬하에 남매를 두었고,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학창시절 수양회 때 깜빡깜빡 졸았던 것과 현재의 신앙생활은 별개라며 너털웃음을 짓는 그는 이솝우화를 좋아하고, 성경을 즐겨 읽는다. 또한 틈틈이 여가 시간에는 등산과 바둑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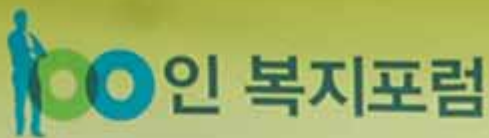
우리 동문들이 마음을 모아 모교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하는 홍 동문은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어김없이 계성의 친구들과 선후배 동문들을 생각했다.”면서 우리 모교가 더욱 진취적으로 교풍을 발전시켜 후배들의 호연지기를 키워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종범(64회) 동문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매달려  
좋아하던 테니스와 마라톤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복지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책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명작으로 추천하는 안중범 동문은 대구광역시 침산동에서 태어나 봉산동에서 평범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좁은 골목에서 축구도 하고 딱지도 치며 노는 것 좋아했던 자신이 성균관대 교수가 되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놀라던지, 지금도 그 표정들이 생생하다.

안중범 동문은 학자로서 20여 년간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 입안 및 시행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재정과 복지 관련 이슈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보다 소수 이해 당사자들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좋은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를 법률안에 반영하여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결국 국회의원이 되었다.

안중범 동문은 “105년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이어가는 ‘계성의 졸업생’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직책을 열심히 수행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며, “우리 동문 모두가 각자 맡은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모교의 이름을 만방에 드높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성의 후배님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계성이 명문’이라는 자긍심이 한껏 고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창 공부 중인 후배 여러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소극적이나 수동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라고 강조했다.

## 적극적 노력과 열정이 인생의 성취 비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터

안중범 동문은 최근에 새누리당 ‘100% 공약실천본부 총괄간사’를 맡았다. 날마다 연속되는 회의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이 들고, 그렇게 좋아하던 테니스와 마라톤도 전혀 못하는 실정이지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생각하면 마음만은 가볍다. 아울러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당의 공약을 실천해 나간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애쓸 각오다.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축구부를 재창단함에 따라 고교 시절 3년 내내 축구경기 구경을 다니면서 골을 넣을 때마다 교가를 불렀던 기억이 제일 생생하다. 골을 넣을 때마다 교가를 부르는 전통은 안중범 동문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뇌리에는 교가가 아른거린다. 그밖에 2학년 때 영어를 가르쳐주신 김왕현 선생님! 늘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으시던 그 소탈한 모습이 그립다.

끝으로 안중범 동문은 “저는 국회의원회관 513호에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들 많이 놀러오세요. 선후배 동문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유도 9단 '入神' 박태인(47회) 동문

# “모교의 도약은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오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와 바둑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며 건강관리를 하는 사나이! 동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가? 아마도 그저 평범한 소시민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 그 주인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2011년 계명대 정년퇴임 후 현재 대구광역시 유도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박태인(47회) 동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지금까지 그 유단자만 40만 명 이상을 배출한 대구광역시 유도회의 주역 중 한 사람이다.

권수보 선생님의 권유도 크게 작용했지만 그는 스스로 좋아서 유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창의적인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유도 인재들과 평생을 함께 생활하는 것은 큰 행복이다. 하지만 현실은 암기 위주의 교과중심 교육에 치우쳐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이 외면 받기 때문에 스포츠 저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학창시절을 추억해볼 때, 교문 앞에서 복장 위반으로 김문선 학생과장 선생님께 적발되었는데, 삼십육계 줄행랑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도망을 치다가 대구역까지 갔다. 김 선생님이 따라오는 것만 같아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달렸던 것이다. 또 국어수업이 막 시작되기 직전에 단신의 유병

석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친구들에게 “조용히 해라, 짜리 뭉땅 온다.”고 외쳤다가 교단에 올라선 유 선생님께 호출 받고, 그 시간 내내 얼어맸을 뿐만 아니라 교무실까지 끌려가 줄곧 얼어맸은 일이 떠오른다. 그때는 참 철이 없었다.

## 모든 추억이 아름다운 50계단 못 잊어 여호와 나의 목자이자 지식의 근본

그래도 모든 것을 추억 속에 녹여주는 50계단의 모교가 좋다. 특히 안기성 선생님과 윤근필 선생님에 대한 애뜻한 정은 여전하다. 아울러 10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교가 앞으로도 덕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선생님들을 모셔오는 일이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그는 말한다.

박 동문은 우리 계성인들에게 학창시절에 《벤허》와 《퀴바디스》를 읽었던 영원한 감동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모교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싶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래도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며 사는 것, 아내와 2남 2녀와 더불어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것을 거듭 되뇌며 행복하게 사는 것도 전부 그때 그 시절 그 가르침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본회 박연탁 감사, 순천향대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 “성실, 근면, 정직한 삶”이 대학의 건학 이념과 맞아

지난 4월 19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순천향대학 본관 1층 스마트홀에서 본회 박연탁 감사(50회, 동기회장)의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손풍삼 총장, 박춘식 대학원장 등 대학 관계자 및 수여자 가족, 모교와 총동창회의 박성대 명예회장과 김태동 재단이사장을 비롯한 담수회, 라이온즈, 함양박씨 종친회, 계성 50회 동기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이상희 대학원 교학부장의 사회로 수여식이 시작되었다.

박춘식 대학원장은 국민의례 후 추천사를 통해 박연탁 감사의 약력을 소개하고, 지난 35년간의 봉사활동, 장애인 돕기, 국민윤리와 도덕 선양 등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한 수여자에게 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연탁 감사는 국가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식량이 절대 부족하고, 국민소득이 낮았던 1970년대 당시 곡물 대체 수단인 밀가루 생산을 증대하여 국가 식량 정책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도



정부양곡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국가 식량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삼창제지 경영자로서 폐지를 수집하고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원지를 생산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아 원자재 수입에 대한 외화 지출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06년도부터 계산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자조·협동'정신에 맞추어 서민경제의 금융 산업에도 참여하고, 국제라이온스클럽 대구경북라이온스 회장으로 지난 35년간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유림단체 담수회의 부회장으로서 국민윤리와 도덕 선양 및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 등은 순천향대학의 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천 요지를 밝혔다.

손풍삼 총장은 "벚꽃축제가 열리는 좋은 계절, 좋은 이날에 동문이면서 학위를 영득하는 내외분께 5만 5천 동문들을 대신 해서 축하한다. 일생을 낮은 자세로 살며 기업인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온 박연탁 박사의 정신은 의과대학 중심으로 인간애와 육영사업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본 대학의 정신과 일치하며 공통분모가 많다. 그와 동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연탁 감사는 답사를 통해 "인간애의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은 순천향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우리는 다문화가족사회로 변화하며 유럽처럼 공동체 경제로 진화하는 가운데 무역 활성화를 통해 자립경제를 구축하고, 노사 간 상호 화합을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력 증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국가 재정 위기와 남북문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답사 전에는 내빈을 소개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건강 문제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헌신적인 내조를 아끼지 않은 부인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박연탁 감사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6~28절을 인용하며 낭독하였다.

총동창회 박성대 명예회장은 "손풍삼 총장, 박춘식 대학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하고, 도덕성이 강한 금번 학위 수여자는 국가와 사회 및 대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할 신사이자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하다."축사했다.

꽃다발 증정과 기념 촬영을 하며 1부 수여식은 폐회되었고, 2부 리셉션이 이어졌다. 온양관광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축하 리셉션에서는 손풍삼 총장의 인사말과 함께 대학 관계자 인사 및 소개 등으로 이어졌으며, 손풍삼 총장은 "역사와



전통이 뿌리 깊은 대구 계성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어 감사하다. 국가의 염려를 붙들고 있는 대학의 총장으로서 박연탁 박사에게 당부하는 것은 앞으로도 전 인류에 대한 순애보적인 사랑을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동 재단이사장은 "순천향대학에서 금번 학위를 수여한 것은 진짜 자갈밭에서 보석을 캐낸 것과 같은 의미이다."라고 강조하고, 대학과 수여자가 지향하는 목표가 같아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연탁 감사는 순천향대학 명예박사 모임인 〈순명회〉 20기에 입회할 예정이다.

정리 이수남(50회 / 前 편집주간)

## 박연탁 명예 경영학 박사 약력

### 학력

- 성균관대 법정대학 정치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경영학 석사, 세무사)

### 경력

- 대동제분공업사 대표
- 삼창제지공업사 대표
- 대동산업사 대표(정부양곡가공 및 보관업)

### 사회활동

- 대구경북 라이온스클럽 회장
- 성균관대 대구동문회장
- 함양박씨 대구경북 종친회장 역임
- 現 계산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대한곡물협회 대구지역 회장
- 유림단체 담수회 부회장
- 연세대학 총동문회 이사

# 계성인의 서재

박 두 포 (32회) 동문(前 경일대 교수) **미수(米壽) 기념 문집 출간**

“시련 이겨낸 향토의 역사가 곧 국사”



《미수기념문집》을 들고 있는 박두포 동문

**대구 민주화 운동의 원로이자**

**고서(古書) 번역 국문학자**

대구 민주화 운동의 원로인 초정(樵丁) 박두포 前 경일대 교수(88)가 미수(米壽) 기념 문집을 출간했다.

이 책은 크게 부모와 스승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타낸 감은록(感恩錄)과 1925년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자전적 이야기, 고향인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옛 의흥면 원당리)에 대한 향토사와 선조와 문중(월성박씨 무계공파)에 대한 가계사(家系史)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필 형식으로 기록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에 계성학교를 졸업하고, 출세길이 보장된 대구검찰청 서기직 취업을 거부했고,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부임하여 월급 42원을 받으며 교사생활을 하



다가 모든 과목을 일본어로 가르치라는 일제의 강압을 거부하며 사표를 냈던 일화 등을 연대순으로 꼼꼼하게 기록했다.

또한 광복 후 6·25 전쟁과 5·16 군사정변을 겪으면서 초지일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견지하며 지조를 지키다가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아울러 1965년 청구대학 부설 공업전문대(現 경일대 전신)에 재직하면서 한일 외교협정 반대 시국교수선언을 주도하고, 신문과 잡지 등에 유신을 반대하는 기고를 하다가 고초를 겪었다.

1980년에는 신군부에 맞서 교수협의회 결성을 주도하면서 숙정 대상 교수로 낙인찍히고 1차 해직을 당했다. 1983년 복직 후 1985년에 전두환 군사정권을 비판하고, 학내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경일대 전



신인 경북산업대에서 또다시 교수 재임용에 탈락하는 아픔을 겪는 등 해직과 복직을 두 번이나 반복했다.

하지만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저자는 김유신 장군의 전기인 《각간실기》와 《동명왕편 제왕운기》, 《향토의 문집》 등을 번역하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해 국문학자로서 큰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아울러 지역 언론사에도 활발하게 기고를 하는 등 사회 참여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박두봉 동문은 “한 그루 나무와 풀 한 포기 را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겨레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며 “향토의 문화와 역사가 곧 국사”라고 말했다.



2000년도 금강산을 방문했을 때 기념사진

##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을 이끄는 김 현 준 (63회) 동문

### 시민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문화의 場’으로 초대합니다!

김현준(63회) 동문이 이끄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이 국내 사단법인 중에서 발군의 활동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33-1번지 희망신협 2층에 소재한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lindlove.org>) 안에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에 동문 여러분께 일단 한번 방문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 사회의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의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고립되어 삶을 근근이 이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시각장애인의 문화를 풍부히 하기 위해 내딛는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의 발걸음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은 시민들과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누리는 문화의 場이 되 고자 합니다.”



###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문화원

#### 팝스잉글리쉬, 한시강좌, 영화교실, 역사문화기행 등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은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하는 ‘팝스잉글리쉬’, 화요일 오후 7시에 하는 ‘한시강좌’, 금요일 7시에 하는 ‘영화교실’ 등이 주간 프로그램이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역사문화기행’은 월간 프로그램이다. 오는 8월의 역사문화기행은 1박 2일간 캠프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기획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총 15회를 맞는 ‘도서낭독아카데미’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공연문화, 음악, 영화 등 전문 분야별 강좌로 집중된 ‘문화아카데미’도 개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비정기적으로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뮤지컬, 오페라, 기타 등 각종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나들이’도 있다.



### 기관 소식지 《시각과 문화》 발간, 세계 수준의 볼링클럽도 유지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이 발행하는 계간지 《시각과 문화》 올해 봄호는 통권 31호이다. 회원 및 지원기관, 단체에 발송하는 소식지인데, 시와 수필, 서평, 답사기, 음악 이야기 등 읽을거리도 다양하다. 특

히 지난 30호에는 김명주 회원이 쓴 ‘장애여성들의 차별 극복과 인권을 위해’라는 글이 감동적이었다. 기관 소식지 《시각과 문화》에 실려 있는 회원들의 역사기행 답사 사행시 중 두 편을 골라 읽어본다. ‘금산인삼’을 시제로 민경옥 회원이 쓴 사행시는 ‘(금)금강산도 식후경이라 / (산)산삼 사촌인 인삼튀김을 먹고 나니 / (인)인삼 먹은 때보다 / (삼)삼배나 힘이 솟는다’, ‘쌍계정금’을 시제로 정희령 회원이 쓴 사행시는 ‘(쌍)쌍화차는 / (계)계란 노른자를 넣어야 / (정)정말로 / (금)금메달감이 된다’ 아울러 기관 산하 단체로는 ‘나이스 볼링클럽’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볼링클럽으로서 매주 대덕볼링장에서 운동을 한다. 회원들은 전국대회는 물론 세계선수권대회에서까지 우수상을 받은 뛰어난 실력을 자랑한다.

### 후원은 기부금 처리, 홈페이지 열람 반드시 권유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에 후원을 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좋은 정보로 가득한 인터넷 홈페이지([www.blindlove.org](http://www.blindlove.org))를 방문해보시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샘솟을 법하다. 전화 053)257-5657, 후원 대구은행 096-05-002769-1(예금주 :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이다.

## 김 준 호 (71회) 동문 《최신중국세법실무》 발간

회계법인 대광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김준호(71회) 동문이 근래 중국 세법의 경향을 세세하게 소개한 《최신중국세법실무 : (주)영화조세통람》라는 책을 책임 집필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과시했다. 김준호 동문은 중국 유명 학술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였고, 2009년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중국사회과학원 회계학 전공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현재 한양대에서 중국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 중국사회과학원 최초의 회계학 전공 경영학 박사 중국세법과 한국세법 비교 설명하여 이해를 극대화

이번 저서에는 중국 세법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경험한 저자의 전문성이 고스란히 부각되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중국 세법 자체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중국 세법과 한국 세법을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사계의 학문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박태준기념사업회 문화잡지《청라언덕》창간

###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청라언덕 음악회’도 개최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뻘뻘뻘 뻘뻘새 숲에서 울 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 기력기력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뚜라미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최순애 작사, 박태준 작곡 ‘오빠 생각’

박태준기념사업회(공동회장 이병구)가 문화 잡지 《청라언덕》 창간호를 펴냈다. 故 박태준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인 ‘동무 생각’을 작곡한 대구의 음악가이다. 그는 1924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로 알려진 윤극영의 ‘반달’보다 4년 앞선 1920년에 ‘기리기’, ‘가을밤’ 등을 작곡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 교수는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에서 박태준은 윤극영보다 일찍 1920년에 ‘기리기’ 등 여러 동요를 작곡하였고, 이 곡들을 1929년에 자신의 창작 동요집 《중중 때때중》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 박태준의 ‘기리기’, ‘아! 가을인가’는 한때 금지곡

박태준의 ‘기리기’는 한때 금지곡이었는데, 작사자가 월북한 윤복진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사가 한동안 이태선이 새로 지은 ‘가을 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으로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금지곡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대중들은 그저 박태준의 ‘기리기’를 열심히 애창했다.

또한 박태준의 ‘아! 가을인가’도 금지곡이었다. 역시 윤복진이 작사했다는 죄목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작사가의 노랫말을 사용하여 나운영이 작곡한 ‘아! 가을인가’는 금지곡이 되기는커녕 교과서에도 실렸다는 것이다. 나운영은 작사가의 이름을 윤복진으로 쓰지 않고 예명인 김수향으로 썼던 것. 훗날 이 사실이 알려져 나운영은 가사를 자신이 직접 고쳐 노랫말을 다시 지었다고 한다.

박태준기념사업회가 기관지의 제호를 《청라언덕》으로 정한 것도 그의 곡에 나오는 노랫말에서 연유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흰 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으로 평가받는 박태준의 ‘동무생각’은 이은상이 노랫말을 썼다. 청라언덕은 계성학교에서 신명여학교로 오가는 길이며, 이름 그대로 푸른[靑] 담쟁이[蘿]로 덮인 선교사 주춧돌이 고풍스러운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다. 박태준은 등학교하면서 이 길에서 이름도 모르는 신명여학교 소녀를 마주치면서 그녀를 짝사랑했고, 훗날 창신학교에 근무할 때 그 추억을 동료 교사인 이은상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은상이 그 짝사랑의 마음을 노랫말로 써주었다고 한다.

박태준기념사업회가 펴낸 《청라언덕》 창간호는 남세진 초대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의 ‘박태준, 작곡과 합창 운동의 선구자’, 김희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대구제일교회와 작곡가 박태준’,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우리 민족이 사랑한 작곡가, 박태준’, 정만진 소설가의 ‘박태준은 무엇을 노래하였나’, 그리고 아들 박문식 씨를 인터뷰한 ‘자애로운 아버지, 박태준을 추억하다’ 등을 수록하였다.

박태준기념사업회는 아울러 ‘박태준 가곡 동요 음반’도 발매했고, 기념으로 지난 6월 26일 오후 7시 30분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청라언덕 음악회’도 개최했다. 최영애 음악 칼럼니스트가 전제 해설을 맡았고, MBC 오케스트라(이일구 지휘)의 연주로 진행된 이 음악회는 박태준이 창작한 가곡과 동요들로 구성되었다. ‘맴맴’, ‘오빠 생각’, ‘새 나라의 어린이’ 등의 동요는 조형서, 배세영, 최보윤이, ‘동무생각’ 등 의 가곡은 김상은, 제상철, 방성택, 한용희가 불렀다. 오페라 ‘청라언덕’에는 신현옥, 이정아가 나섰으며, 음악회는 전석 무료로 열렸다.







## 2012학년도 1학기

### ■ 2012학년도 계성중고 합동 입학식

- 일시 : 2012년 3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모교 강당



### ■ 2012학년도 꽃동네 봉사활동

- 일시 : 2012년 2월 27~29일(2박 3일)
- 장소 : 충북 음성군 소재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 과학의 달 명사초청 강연

- 일시 : 2012년 4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 장소 : 모교 강당
- 강사 : 유현오(76회) 동문(주)제닉 대표이사
- 주제 : 긍정적인 삶



### ■ 명사초청 강연

- 일시 : 2012년 5월 11일 금요일 4교시
- 장소 : 모교 강당
- 강사 : 함인석(55회) 동문(現 경북대 총장)
- 주제 :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 ■ 상하이 차오양중학교 방문

- 일시 : 2012년 5월 22~26일(4박 5일)
- 장소 :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 일원
- 참가자 :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6명
- 인솔교사 : 중학교 - 강정서, 정봉성, 조석천  
고등학교 - 강호중, 김용익, 노원현



### ■ 개교 106주년 기념 체육대회

- 일시 :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오전 8시 50분
- 장소 : 두류야구장
- 초청 : 순천매산고등학교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 선정

모교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한동대 입학사정관 초청 특강 및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안내 특강이 있었고, 지난 6월 11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명사초청 강연

- 일시 : 2012년 6월 15일 금요일 6교시
- 장소 : 모교 강당
- 강사 : 강지원 변호사
- 주제 : 나의 꿈, 어디서 어떻게 찾나?



## ■제48회 쌍용기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 우승

제48회 쌍용기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 결승전에서 모교 농구부가 용산고를 상대로 74-69로 승리하면서 2012년 들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을 기념하여 지난 6월 15일 모교 강당에서 전교생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행사를 열고, 전적 보고 및 우승기 전달 등의 순서를 가졌으며, 법인과 총동창회 등에서 보내온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 ■2012년도 맥추감사예배

- 일시 : 2012년 6월 27일 수요일 2교시
- 장소 : 모교 강당
- 초청 : 유기남 목사



## ■제49회 법의 날 기념 법관 특별 강연

- 일시 : 2012년 6월 29일 금요일 2교시
- 장소 : 모교 강당
- 강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탁
- 주제 : 사법제도의 이해, 준법익식의 함양, 폭력예방지도



## ■학교폭력예방 스토리텔링 콘서트

- 일시 : 2012년 6월 29일 금요일 2시 30분
- 장소 : 모교 강당
- 대상 : 1~2학년 전체 학생
- 주제 : MBC 뮤직스쿨과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스토리텔링 콘서트



## 2012년 장학기금

〈1월1일~6월30일〉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장 기 일	26	50,000	이 창 재	61	100,000	남 시 흥	65	300,000
이 덕 옥	46	100,000	최 종 석	61	1,000,000	구 헌 모	66	200,000
설 춘 수	49	100,000	곽 우 섭	62	100,000	문 병 인	66	100,000
최 용 진	50	100,000	강 동 구	63	100,000	박 현 동	67	200,000
하 죽 봉	50	80,000	김 여 진	63	2,000,000	우 병 삼	67	80,000
김 상 문	51	100,000	박 정 화	63	3,400,000	최 동 근	67	100,000
서 개 승	53	100,000	양 규 지	63	300,000	이 준 렬	77	1,000,000
정 운 식	53	50,000	김 국 영	64	1,000,000	이 진 원	77	100,000
김 동 규	58	1,000,000	박 시 현	64	200,000	전 병 덕	77	600,000
서 정 쌍	58	100,000	손 중 배	64	2,000,000	윤 성 준	87	500,000
임 문 섭	60	200,000	오 근 훈	64	300,000	<b>합 계</b>		<b>15,660,000</b>

## 2012년도 회보구독료

〈1월1일~6월30일〉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서 복 섭	31	10,000	박 용 희	42	30,000	황 상 출	45	30,000
오 상 건	31	20,000	백 영 수	42	10,000	구 본 탁	46	20,000
김 병 주	35	50,000	이 만 환	42	20,000	김 성 수	46	20,000
김 수 관	39	20,000	임 재 규	42	20,000	최 송 범	46	20,000
서 정 원	39	20,000	최 춘 길	42	50,000	권 병 근	47	50,000
은 희 춘	39	20,000	양 화 송	43	30,000	김 근 조	47	30,000
허 동 원	39	20,000	채 근 수	44	20,000	이 중 우	47	20,000
오 준 섭	40	200,000	홍 신 화	44	30,000	정 주 환	47	20,000
이 상 태	40	20,000	김 인 학	45	20,000	김 석 조	48	20,000
김 정 옥	41	30,000	박 영 태	45	50,000	이 성 화	49	50,000
김 태 선	41	100,000	전 재 수	45	20,000	하 규 진	49	20,000
김 명 희	42	100,000	조 석 제	45	20,000	강 의 경	50	20,000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성명	기수	금 액
김 승 보	50	20,000	이 윤 근	56	20,000	권 영 종	63	10,000
김 주 현	50	100,000	장 승 국	56	30,000	김 등 식	63	20,000
은 종 우	50	10,000	박 제 동	57	20,000	박 성 현	63	20,000
이 영 한	50	20,000	배 기 열	57	20,000	최 재 경	63	20,000
이 재 광	50	10,000	성 기 진	57	20,000	김 팔 주	64	10,000
정 창 현	50	20,000	송 종 수	57	20,000	전 형 배	64	20,000
최 용 진	50	100,000	이 경 석	57	100,000	송 현 익	65	20,000
하 죽 봉	50	20,000	서 정 쌍	58	20,000	권 동 혁	66	20,000
설 형 식	51	30,000	한 정 훈	58	20,000	권 영 훈	66	60,000
이 호 철	51	30,000	권 혁 선	59	10,000	배 정 호	66	20,000
문 희 태	52	30,000	김 신 국	59	20,000	장 준 규	66	20,000
박 순 우	52	20,000	김 재 현	59	20,000	김 인	67	20,000
이 수 환	52	10,000	김 진 호	59	20,000	우 병 삼	67	20,000
정 병 대	52	20,000	박 두 환	59	20,000	최 동 근	67	20,000
허 성 욱	52	20,000	권 혁 중	60	20,000	김 복 수	68	20,000
김 강 섭	53	60,000	김 효 중	60	10,000	장 영 형	68	10,000
김 대 관	53	20,000	이 윤 재	60	20,000	김 창 수	69	10,000
안 일 준	53	20,000	임 문 섭	60	20,000	이 원 명	69	20,000
정 윤 식	53	20,000	장 순 겐	60	20,000	장 상 배	69	20,000
김 종 윤	54	20,000	정 성 화	60	10,000	신 한 식	71	20,000
박 현 철	54	20,000	김 수 길	61	30,000	박 흥 은	73	20,000
이 도 영	54	20,000	안 장 일	61	20,000	신 창 철	74	20,000
변 희 창	55	20,000	한 기 영	61	100,000	이 진 원	77	20,000
허 성 군	55	50,000	변 창 대	62	20,000			
김 재 형	56	20,000	우 영 철	62	100,000			
김 희 승	56	20,000	한 종 원	62	20,000			
손 덕 곤	56	10,000	강 동 구	63	20,000			
						합 계		3,240,000

# 『啓聖同窓會報』는 동문님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계성동창회보가 동문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계성동창회보는 총동창회 활동 소식 이외에도 각 기수별, 지역별, 직능별, 해외 동문회 소식 등을 동문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문 개개인의 동정(승진, 이동, 개업, 경조사 등) 및 그리운 모교 소식,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동문들의 폭넓고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동문 상호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모교와 총동창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성동창회보는 2012년에도 계성인들의 편안한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성동창회보 발간은 동문 여러분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소식에 대해 총동창회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회보에 게재되어 동문 상호간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 발 비켜서서 지켜보던 동문들도 각 기수별, 동호회별 활동상을 보며 ‘나도 한 번 참석해볼까?’라는 참여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소소하거나 아주 개인적인 소식이어도 좋습니다. 계성동창회보는 여러분들의 소식으로 채워가는 공간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 기별/ 지부별 / 직능별 / 동호회 소식

□ 동문동정(승진, 이동, 개업, 경조사 등)

□ 자유기고

□ 추억의 사진 및 기타 게재를 원하는 내용

※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 기고와 칼럼을 게재해주실 동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회/보/자/료/접/수/처 ■

계성총동창회 사무국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TEL: 053)255-3900 FAX: 053)256-4942 E-mail: keisung@keisung.or.kr  
홈페이지: 계성학교총동창회 www.keisung.or.kr

골프용품

# (주)킹타이거



최고가 되는 순간을 느껴십시오!

대표이사(www.kingtigergoef.kr) 김 정 한 (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7-1 아르누보팰리스 503호 TEL : (02)600-0500 C·P : 010-2225-2255 FAX : (02)600-0021 E-mail : kingtiger@hanmail.net

## 청하 조형연구소 미술심리상담실

소장 /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김 익 수 (45회)

상담사 / 전문 미술 치료사 윤 형 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O/T 906호  
TEL : (053)755-2622 C·P : 011-828-9029 / 010-9370-9029  
E-mail : kimis@ynu.ac.kr / hjyoon0105@hanmail.net

제지용약품



## (주)엠텍

대표이사 서 맹 수 (45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58-6  
TEL : (053)611-2233 C·P : 011-501-2993  
FAX : (053)611-7002~3

## (주)유진개발

빌딩임대사업

대표이사 이 무 건 (45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3-5  
TEL : (031)469-1533 C·P : 010-8744-9340  
FAX : (031)469-1533  
E-mail : mkleee721@yahoo.co.kr

섬유업

대표 박 실 (48회)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2041-133 TEL : (053)358-9191~5  
C·P : 011-501-0191 FAX : (053)351-1666 E-mail : silpark@wooilbiz.com

“최고의 품질로 모시겠습니다.”

## 우일염직



원장 김 재 문 (49회)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296-1  
C·P : 010-9011-1729  
FAX : (054)975-7903







# 금성직물

당신의 피부까지 생각합니다.

대표 설 춘 수 (49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1동 845  
TEL : (053)351-0600-4 C·P : 011-501-8058 FAX : (053)351-0605

일반 섬유

# 동진화섬

대표 윤 성 광 (4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48  
TEL : (053)583-1033 C·P : 011-501-1432  
FAX : (053)583-1036  
E-mail : dongjin1979@hanmail.net





# 경창산업(주)

대표 김 승 보 (50회)

경창, 자동차 부품업계의 선두주자

기술 그 이상의 기술력을 위하여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072 TEL : (053)560-0123  
C·P : 010-2346-8533 FAX : (053)559-2337 Homepage : www.kc.co.kr

제조

# 명성기업(주)

대표이사 김 태 진 (50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5-152 TEL : (054)254-2000 C·P : 011-518-7787 FAX : (054)274-0095



공동주택관리업체

# 대동산업

“사람이 살리는 기업 우리가 살리는 기업”

대표 박 연 탁 (50회)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4-48 TEL : (053)567-7748 C·P : 011-501-1531 FAX : (053)567-7749



정부양곡도정공장



# 유신통신(주)

회장 이 용 배 (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28-6 (5F)  
TEL : (053)741-7000 C·P : 010-3501-1313  
FAX : (053)741-7080

일반 통신





피부를 생각하는 건강한 약속

# WellPlus(주)

화장품·건강제품판매/제조

(주)한방명가 대표이사 장 병 수 (50회)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35-7

TEL : (053)815-2828 C·P : 010-3540-6636

FAX : (053)815-2880 E-mail : www.wellplus21.com

대리점,도매업(응접봉)

## 효창산업

“고객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대표 구 영 본 (51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2가 99-9

TEL : (053)354-6856 C·P : 011-821-6616

FAX : (053)354-6857

## (주)모락스마린타인

해운무역

대표이사 김 기 훈 (51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유원B/D

TEL : (02)757-2031 FAX : (02)757-2026

C·P : 010-3734-9072

## 대영하이테크(주) 대표이사 대영실리콘(주) 회 장

전기전자부품제조업체

김 재 길 (5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성서공단내 2차2단지 60B-8L

TEL : (053)582-7495 FAX : (053)582-7550 E-mail : dy7550@unitel.co.kr

건설업

## (주)준

대표이사 이 춘 재 (51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517-14(2F)

TEL : (053)472-3663 C·P : 011-504-3883

서비스업

## (유)칠성시장

대표이사 김 주 휘 (52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 276

“가장 싸고 신선한 상품은 칠성시장에 있습니다” TEL : (053)424-2089 C·P : 017-539-0124

E-mail : ju117@naver.com

일반 운송 화물



# 관음교통(주)

대표이사 안 원 옥 (52회)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27-6 TEL : (053)982-9000  
FAX : (053)983-9003 C·P : 011-509-9002



# 신선농장

아침건강 챙기셔야죠!

과수원

대표 임 관 우 (52회)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지리 567-9  
TEL : (054)872-3793 C·P : 011-514-3793  
FAX : (054)872-7807 E-mail : www.신선농장.kr

- 친환경 사과
- 경상북도 최우수 농산물 지정품
- 전국택배



청송 신선 Apple

# JIC(주)

대표이사 장 광 식 (52회)

무역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B/D 703호 TEL : (02)786-1214 C·P : 010-3747-0211 FAX : (02)786-1243

# 장명익산부인과의원

원장/21C장명익모발이식센터 원장 장 명 익 (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1329-16 / TEL : (053)743-1636 C·P : 011-540-2539

◎ 여성두통·오심·구토·척추골반통·무릎 발목 통증치료  
◎ 레이저 : 점, 사마귀, 잡티 제거

주방기기제조

# (주)드림키친

당신의 주방에는 색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최 길 수 (52회) 경기도 광주시 직동 145-5

TEL : (031)761-0303 C·P : 011-720-3715  
FAX : (031)761-0487 E-mail : 0303dk@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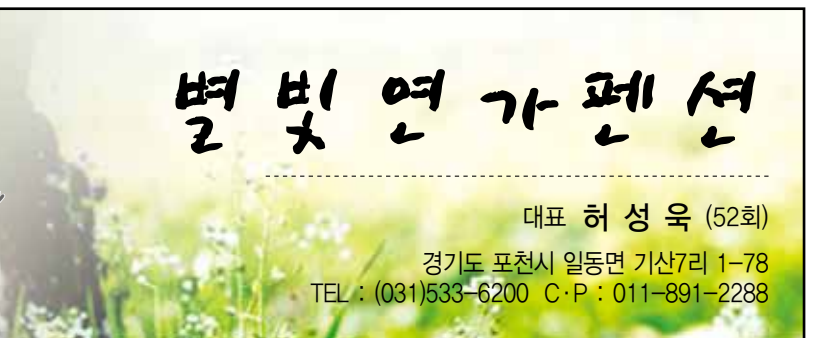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  
소중한 추억을 기록히, 우리들만의 여행을 떠나요  
아름다운 자연에서 낭만을 즐겨보세요!

# 별빛연가펜션

대표 허 성 옥 (52회)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7리 1-78  
TEL : (031)533-6200 C·P : 011-891-2288







부동산개발

# KUP

대표 노태기 (53회)

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12-1

TEL : (041)567-1233 C·P : 010-5229-3927

FAX : (041)567-1248 E-mail : ki0736@naver.com

## (주)서린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대표이사 서주영 (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12-1 대아B/D 10F  
TEL : (053)742-7585 C·P : 011-519-7153



유기농비료제조업체



“화학비료를 넣지 않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유기농비료**만 사용합니다.”

## 세림산업

대표 손도운 (5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419-2 TEL : (053)632-8585 C·P : 011-530-1199 FAX : (053)634-8585

자동차부품제조업체



## 삼현산업

대표 정흥식 (53회)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590-1

TEL : (052)289-8971~4 C·P : 010-9327-7012

FAX : (052)289-8975 E-mail : shin@phauto.co.kr

일반유리



## 선광유리상사(주)

대표이사 조광제 (53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74-12

TEL : (053)656-2324 C·P : 011-507-8744

FAX : (053)656-2324

## (주)동우E&C

대표이사 홍호용 (53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11 영남타워B/D 10F

TEL : (053)749-2000 C·P : 010-8589-7800

FAX : (053)756-9754 E-mail : ceo@dwoo.co.kr

종합감리, 설계, 안전진단, 도시계획







ISO9001인증업체

**화진산업**

대표 권 동 욱 (54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50-9

TEL : (051)206-1492 C·P : 010-3578-5152

FAX : (051)292-5152

섬유염색가공제조

WE DELIVER VALUE TO YOU

**동진섬유(주)**

대표이사 권 준 열 (54회)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300-12 TEL : (054)463-4174 C·P : 010-3508-0375 FAX : (054)463-3564

동진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美(아름다울:미)

**유창섬유(주)**

대표이사 김 각 환 (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42-1 한덕B/D 716호

TEL : (02)3672-8953 C·P : 016-244-9877

FAX : (02)3672-8941 E-mail : hap641@hanmail.net

전기부품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경원윌텍(주)**

대표이사 박 기 원 (5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17 경창B/D 301호

TEL : (02)561-2008 C·P : 011-223-6269

FAX : (02)561-2009 E-mail : kwpark@kwwtc.com

**벽산환경기계엔지니어링** 대표

TEL : (053)312-6333

**하루방축산유통** 상무

TEL : (064)796-1534

환경,폐수정화

박 판 석 (54회)

C·P : 011-507-9928

**유진사(주)**

대표이사 이 동 준 (5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8 중앙로얄O/T 2004호

TEL : (02)3472-3211 C·P : 011-274-7911

FAX : (02)3472-8755 E-mail : yoojinsa@kornet.net

섬유제조

호텔납품업유통

## 파라 F&G

대표 임종록 (5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1-17(101호)  
TEL : (02)567-3260 C·P : 011-704-5787  
FAX : (02)567-3261 E-mail : f-para@hotmail.com

## 세무법인 삼성

회장 한명로 (54회)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27-1 동화B/D 708호  
TEL : (02)2275-2323 C·P : 010-5236-9307  
FAX : (02)2275-2277 E-mail : hmr@samsungtax.co.kr

## 서영물류

운수업

대표 강항규 (55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51-1  
TEL : (052)265-8374 C·P : 011-9522-7806  
FAX : (052)265-8375 E-mail : khksy500@hanmail.net

무역

## (주)본코프

대표이사 나영철 (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58 레이크사이드타워 304호  
TEL : (02)2202-5625 C·P : 017-257-6493  
E-mail : charlie@boncorp.co.kr

## (주)서울특별시메타텍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믿을 수 있는 기업”

대표이사 노경호 (55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614-8

가스계량기 제조 및 수리

TEL : (031)969-5262 C·P : 011-9774-4388 FAX : (031)969-5209 E-mail : seoulmeter@yahoo.co.kr

화장품제조업

## 바이오메디코스(주)

Upgrade your life!

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변화로 당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세요!

대표이사 박성화 (55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50-12(402호) TEL : (02)745-8900  
E-mail : psh0089@korea.com C·P : 019-211-0089 FAX : (02)745-0089



건설업

“고객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유창플랜트

대표 안 동 환 (55회)

TEL : C·P : 011-222-2342  
FAX : E-mail : amex010@hanmail.net

## (주)구일건설기계공업

대한민국의 자부심 있는 기업

대표이사 최 성 영 (5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00 TEL : (053)592-9191 C·P : 011-501-3156 FAX : (053)592-9148

## 농기계백화점

대표 김 광 문 (5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3

TEL : (053)252-5484 C·P : 011-501-1269

FAX : (053)252-5484 E-mail :

서비스.파쓰리골프코스

## (주)에버리오

대표이사 김 교 옥 (56회)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727

TEL : (053)812-8900 C·P : 010-3809-6800

FAX : (053)811-6200 E-mail : kw6800@hanmail.net

유류

축전된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고객의 기쁨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삼승유화(주)

대표이사 김 성 민 (5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1-8 우재B/D 6F

TEL : (02)571-5145 C·P : 011-211-0051

FAX : (02)578-5145 E-mail : ksm1950@yahoo.co.kr

자동차부품

## 대한금속

대표 김 윤 (5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282

TEL : (053)581-5511 C·P : 010-3816-8858

FAX : (053)581-9864 E-mail : ykim0007@hanmail.net



건설자재도,소매유통판매업체

## (주)건영기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나 채 문 (56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204-1

TEL : (031)948-8745 C·P : 019-476-4658

FAX : (031)948-8746 E-mail : cmnahl@hanmail.net

수성구 최장의 역사를 가진 실내골프연습장

## 킹스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와 신뢰를 쌓아가는 서비스로

고객님을 항상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대표 박 준 현 (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90-8

TEL : (053)763-5767 C·P : 010-3512-4082

제조

## 대리정밀(주)

회장 정 용 철 (56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복리 1-121

TEL : (053)616-0324 C·P : 010-3501-4923

FAX : (053)614-6491 E-mail : ychjung@empal.com



## 도원골재상사

대표 김 용 배 (5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985

TEL : (053)584-0056 C·P : 011-501-1019

FAX : (053)584-0023

자동차부품



## 대국엔지니어링

대표 박 국 현 (57회)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17-1

TEL : (054)333-7727 C·P : 011-505-4243

FAX : (054)333-7726

일반 주유소

## 성동주유소/신대광주유소

대표 박 행 수 (57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122 (성동주유소)

TEL : (052)952-5152 C·P : 011-529-0414

FAX : (053)952-5153

# 성산엔터프라이즈

대표 배 종 빈 (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한강포스빌 1003호  
TEL : (02)2630-2199 C·P : 011-358-3169  
FAX : (02)2630-2473 E-mail : valderi@hanmail.net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경영자무위원 이 영 석 (57회)

C·P : 010-4785-0020  
E-mail : everstone@swmetal.net



전문 변호사

## 변호사정병칠공중사무소

변호사 정 병 칠 (5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21 우방죽전타운상가 205  
TEL : (053)561-2277~8 C·P : 010-9548-2278  
FAX : (053)561-2279



## (주)두원

대표이사 하 승 만 (57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723 두원B/D 2F  
TEL : (031)693-7655 C·P : 010-9037-5833  
FAX : (031)693-7655 E-mail : hio-5833@hanmail.net

부동산임대업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겸임교수 손 영 진 (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82-13 세일B/D TEL : (02)843-1446  
C·P : 010-1773-3226 FAX : (02)843-1448 E-mail : yjsohn@hanyang.ac.kr

건설자재임대



의류도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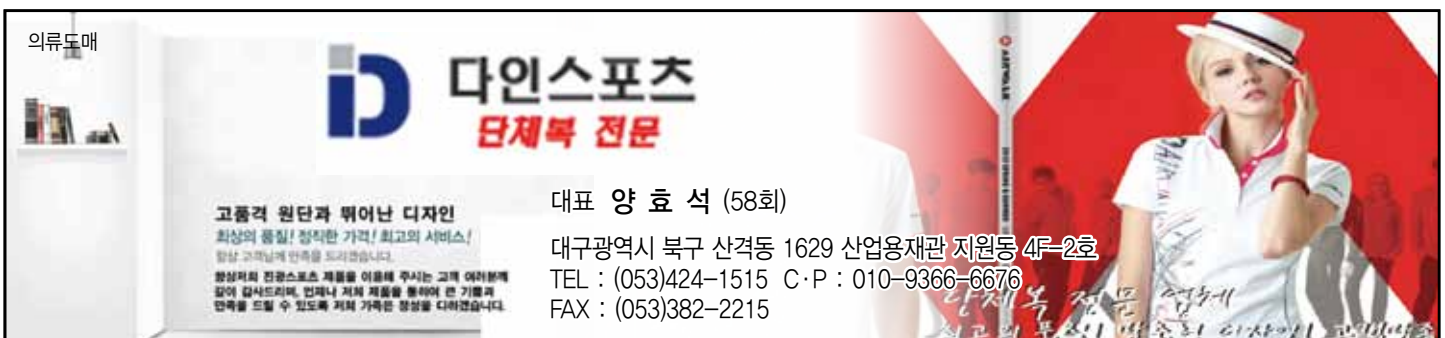


다인스포츠  
단체복 전문

고품격 원단과 뛰어난 디자인  
최상의 품질! 정직한 가격! 최고의 서비스!  
당상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제복 전문스포츠 재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 재물을 통하여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가격은 항상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양 호 석 (58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29 산업용재관 지원동 4F-2호  
TEL : (053)424-1515 C·P : 010-9366-6676  
FAX : (053)382-2215







상임대표 이 순 영 (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B/D 1001호  
TEL : (02)785-5101 C·P : 017-279-5000



플라스틱수출

## (주)KH프라스틱

대표이사 곽 경 환 (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65 이테크밸리 1508호  
TEL : (02)719-8085 C·P : 010-3161-8085  
E-mail : khplast@kosis.net



전문 변호사

## 김동호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동 호 (59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768-14  
TEL : (054)833-8900 C·P : 011-542-3913  
FAX : (054)833-8903 E-mail : lawkims@hananet.net



초음파센서/선박엔진부품 전문생산제조업체

## 한라정공

대표 김 실 봉 (59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229-2  
TEL : (053)356-6701 C·P : 011-526-6701  
FAX : (053)356-6702 E-mail : hallapr@hanmail.net



화물운송

## (주)선산터미널

대표이사 김 학 송 (59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27-5  
TEL : (054)482-0225 C·P : 010-8857-5624  
FAX : (054)482-0226



각종홍보판촉물주문제작및유통판매

## 제이마켓

대표 남 시 범 (59회)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666-62  
TEL : (054)841-1340 C·P : 010-3507-4492  
FAX : (054)841-1342 E-mail : adjmarket@hanmail.net



건설



## 연세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유 병 기 (59회)

C·P : 010-3803-9211

FAX : (053)260-0203

E-mail : yoo9211@yahoo.co.kr

## 법무사임진찬사무소

대표 임 진 찬 (5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95-26(3F)

TEL : (053)633-9677 C·P : 011-555-2888

FAX : (053)656-3830



나일론수지(재생)

고객감동을 위해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겠습니다.

## (주)서영

대표이사 조 동 제 (59회)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1108

TEL : (054)371-5694 C·P : 010-6877-3333

FAX : (054)371-5697 E-mail : cdj5300@yahoo.co.kr

성의와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삼해어망(주)

육상,해상 및 특수망 주문제작 및 무역업

대표이사 천 인 수 (59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415

TEL : (054)285-8707 C·P : 010-7377-8707

FAX : (054)285-8051 E-mail : shfn@hotmail.com

## 죽산개발(주) 에덴블루CC

골프장

대표 한 태 동 (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B/D 901호 TEL : (02)780-4246 C·P : 010-5262-3001 FAX : (02)780-4249



믿음과 신뢰의 든든한 파트너!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님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포일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김 수 만 (60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362-79

TEL : (031)872-9009 C·P : 010-4339-3249

FAX : (031)872-0098 E-mail : poiltax@hanmail.net

# 에이블 CORP

대표 김 노 태 (60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2-6 에이블B/D  
TEL : (02)575-1231 C·P : 018-237-8844  
FAX : (02)3461-8888 E-mail : ablent@hanmail.net

전자제품 제조유통



..... 전자광학장비연구개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는

## (주)토피스

대표이사 김 현 규 (60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엑스포텔 1109호 TEL : (042)488-0916 C·P : 010-8815-0916 FAX : (042)864-0917 E-mail : hnkyukim@hanmail.net

## HESCO 현대중전(주)

전력기기제조

대표이사 전 순 종 (60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국제유통단지 9-136  
TEL : (031)479-3253 C·P : 010-6612-7229  
FAX : (031)479-3254 E-mail : hesco2005@paran.com

www.hyundai-elec.com  
**현대중공업 대리점**  
-차단기 -변압기  
-발전기 -배전반  
-BUS DUCK

통신업

유템, 세계 최고의 기업을 향해!

차세대 통신시장의 리더가 되는 그날까지~

**DO BEST ! UTEM !!!**

Utem

대표이사 정 문 수 (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4-2  
TEL : (02)3019-0300 C·P : 010-9636-9000  
E-mail : jms@utem.co.kr

통신기계제조

## (주)에어텍시스템

대표이사 최 종 기 (60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96-1  
TEL : (031)246-9977 C·P : 010-2427-9977  
FAX : (031)246-9979 E-mail : ceo@airtecsys.com

SUDO  
CORPORATION

섬유업



i.e'l'd

## 서도산업(주)

대표이사 한 재 권 (60회)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433  
TEL : (053)985-3881 C·P : 010-3501-4174  
FAX : (053)985-5506 E-mail : sudohan@lycos.co.kr





# 대경산업개발

대표 김 재 현 (61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162

TEL : (054)373-3104 C·P : 011-814-8517

FAX : (054)371-1293 E-mail : jhk162@hanmail.net

전문건설



## 표준건설(주)

사장 신 윤 훈 (6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2 우성O/T 215호

TEL : (02)3789-3351 C·P : 010-3747-2049

E-mail : hoons505@yahoo.co.kr



## 제이스산업개발(주)

회장 이 정 수 (61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22-2 (5F)

TEL : (053)742-7517 C·P : 010-9494-9909

FAX : (053)742-7519 E-mail : js17784@hanmail.net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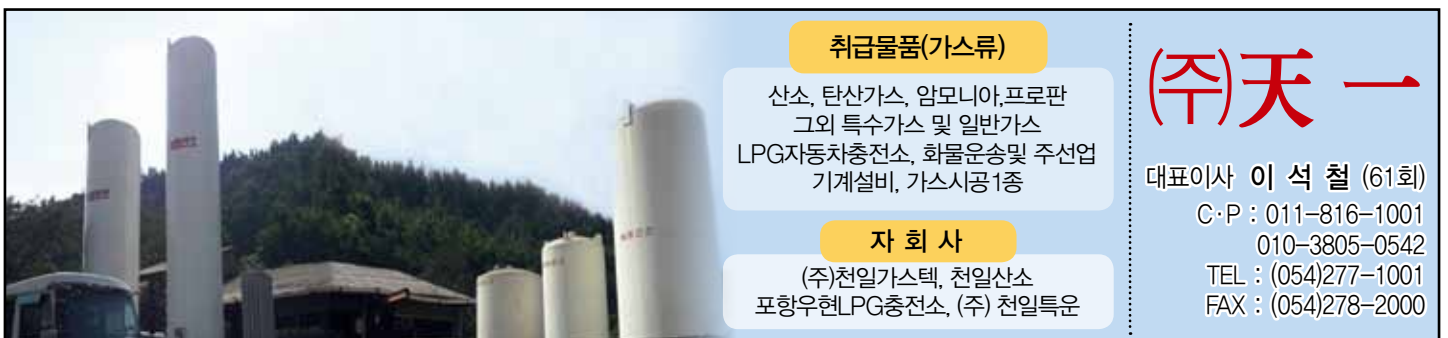
## 대전보건대학교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부총장 유 창 영 (6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TEL : (042)670-9000 C·P : 010-8972-0284

E-mail : cigancof@hanmail.net



### 취급물품(가스류)

산소, 탄산가스, 암모니아, 프로판  
그외 특수가스 및 일반가스  
LPG자동차충전소, 화물운송및 주산업  
기계설비, 가스시공1종

### 자 회 사

(주)천일가스텍, 천일산소  
포항우현LPG충전소, (주) 천일특운

## (주)天一

대표이사 이 석 철 (61회)

C·P : 011-816-1001

010-3805-0542

TEL : (054)277-1001

FAX : (054)278-2000

PVC유통

## 대우 P.V.C

대표 정 창 식 (61회)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249-3

TEL : (054)331-7841 C·P : 011-503-7841

FAX : (054)331-7843





대표관세사 강 구 현 (62회)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29-16

TEL : (031)618-9343 C·P : 010-8226-8179

FAX : (031)618-9347 E-mail : kg2493@naver.com

기계설비 공사업체



## 대한엔지니어링

대표 공 영 찬 (62회)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12

TEL : (054)469-3966 C·P : 010-6260-1915

FAX : (054)463-1915 E-mail : kyckolon@naver.com

## 경북플랜트산업(주)

대표이사 권 혁 도 (62회)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808-45 TEL : (054)454-7847 C·P : 010-3816-7847 FAX : (054)456-4516 E-mail : kb\_Plant@naver.com

## 대/구/산/재/병/원

진료부원장 김 병 식 (62회)

C·P : 010-2002-9337

E-mail : nrckim@hanmail.net



플라스틱원료제조업체



## 폴리테크산업

대표 박 정 하 (62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 아크로팰리스 1210호

TEL : (031)387-4300 C·P : 011-385-7980

FAX : (031)387-3404 E-mail : astron@chol.com

무역업

## (주)신우테크

대표이사 변 순 환 (62회)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7 농산물도매시장 301호

TEL : (055)287-9002 C·P : 011-865-1722

FAX : (055)237-9105 E-mail : secotip@unitel.net







# 경기남양주경찰서

파출소장 이 성 근 (62회)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5-1

TEL : (031)567-0113 C·P : 018-273-5477

E-mail : lsklsk5477@hanmail.net

건설업

## 유니텍이엔지(주)

대표이사 조 윤 황 (62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3-1 TEL : (031)732-1146 C·P : 017-261-0037 FAX : (031)732-1148 E-mail : choyh56@nate.com

## (합)소백산업

스텐레스자동차부품, 스텐레스보일러, 열교환기부품

대표이사 홍 승 도 (62회)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249-1 장수농공단지

TEL : (054)637-3452 C·P : 017-525-9922

E-mail : sobak3453@hanmail.net

기계부품가공

## 강원정밀

대표 김 경 식 (6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20

TEL : (053)581-2942 C·P : 011-527-0935

FAX : (053)587-3950

## (주)세계경호원연맹

부회장 김 종 구 (63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2동 503-2

TEL : (053)435-3338 C·P : 010-7360-8828

E-mail : suntao1016@yahoo.co.kr



일반 건설

## 태양레미콘(주)

대표이사 석 찬 영 (63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100-14

TEL : (053)583-5001 C·P : 010-3529-6241

FAX : (053)583-5004 E-mail : scy6241@hanmail.net





고무,호스(유통업)

## 유경산업

대표 신 윤 (63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유통상가 5-120  
TEL : (031)479-2260 C·P : 010-6232-5803  
FAX : (031)479-2262 E-mail : yk3200@hanmail.net

컨설팅

Great People  
그레이트 피플

## (주)그레이트피플컨설팅

대표이사 윤 갑 호 (63회)

C·P : 010-2051-4462  
E-mail : ygh1957@naver.com

제조

## 주영화학(주)

대표이사 이 명 호 (63회)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당리 527-1  
TEL : (053)818-3507 C·P : 010-3507-2276  
FAX : (053)818-3508

섬유무역

## (주)아진

대표이사 이 병 규 (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6-44  
TEL : (02)722-5532 C·P : 010-5233-5532  
FAX : (02)720-8098 E-mail : bklee@ajintex.co.kr

## 백상E&C(주)

대표이사 이 종 영 (63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4-5 경보이리스힐 상가동 4층  
TEL : (051)553-6329 C·P : 010-9911-4596

반도체수출입/제조

## (주)동운인터내셔널/(주)동운아나텍

Target for the Global Leading  
Analog Semiconductor Manufacturer

대표이사 김 동 철 (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7-8 아리랑타워 9F  
TEL : (02)598-5240 C·P : 010-5213-2637  
FAX : (02)598-5055 E-mail : dckim@dwanatech.com



# 일신산업(주)

대표이사 김 현 식 (64회)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748-1  
TEL : (054)746-2754 C·P : 011-526-0122

## 신원섬유

대표 이 동 희 (64회)

TEL : (053)425-7920  
C·P : 010-2082-7920

## 삼표

레이콘, 골재, 플라이애쉬, 불질 우수성으로  
고객만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상무이사 장 준 영 (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91-5 대원엔B/D 7F  
TEL : (02)6270-0650 C·P : 010-2610-1831  
FAX : E-mail : 1957jy@hanmail.net



무역업



SJ TNC (주)삼지테크앤씨  
세계 최고의 반도체 및 전자소재 유통 기업

## (주)삼지TNC

대표이사 황 병 득 (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B/D 1303호  
TEL : (02)6242-6640 C·P : 010-2744-2661  
FAX : (02)6242-6645 E-mail : sj@sj-trading.com

자동차부품수출



## 명진상사

대표 황 영 보 (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B/D 1401호  
TEL : (02)6351-4811 C·P : 010-2417-0776  
E-mail : myungjincokr@hotmail.com

실내인테리어설계시공업



## 신일상재

대표 강 증 석 (65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리동 179-2  
TEL : (031)295-7377 C·P : 010-6733-8504  
FAX : (031)295-3512 E-mail : kjskorean@yahoo.co.kr



# (주)광진텔레콤

대표이사 권 정 환 (65회)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657-4

TEL : (054)465-9600 C·P : 010-3531-0165

E-mail : mailkweon@hanmail.net

가구건축자재판매

## 대일합판

대표 김 순 준 (65회)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483-2

TEL : (053)641-6868 C·P : 011-814-3152

E-mail : qwe1403@hanmail.net

## 칠곡피부과의원

원장 나 건 연 (65회)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343-2

TEL : (053)326-1111

기술서비스업



## Gargaso Engineering

best choice as your partner

대표이사 백 성 윤 (65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4 시록스타워 907호 TEL : (031)777-9070  
C·P : 010-5339-1997 FAX : (031)777-9073 E-mail : sypack@gargaso.co.kr

스포츠관련제품(의류등)수입유통업체

## UNI상사

대표 윤 종 국 (6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13-57

TEL : (02)466-1945 C·P : 011-9703-3988

FAX : (02)466-1946 E-mail : marchraina@hanmail.net

자원개발

## (주)케이씨아이자원개발

대표이사 홍 원 열 (65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45 태둔B/D 3F

TEL : (042)486-3292 C·P : 010-8880-7227

E-mail : why727@hanmail.net



금속제조

## 한우리스텐산업

대표 김 청 군 (66회)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가 165-2

TEL : (053)424-3083 C·P : 010-3806-3087

FAX : (053)424-3083 E-mail : hwr9481@kornet.net

## 에이템건설(주)

대표이사 송 영 일 (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3-36

TEL : (02)542-5272 C·P : 011-234-0125

FAX : (02)542-5274 E-mail : 0125song@hanmail.net

의류유통

## 경일상사

대표 최 창 덕 (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54-36 (1F)

TEL : (02)404-2063 C·P : 010-6311-6753

FAX : (02)407-7005 E-mail : changd7@yahoo.co.kr

## 대원섬유

대표 최 해 권 (6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56-5

TEL : (053)558-7088 C·P : 011-817-2074

FAX : (053)558-7089

섬유업

## (주)디알시스템

대표이사 김 만 택 (67회)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1107

TEL : (054)773-7111 C·P : 011-501-1544

제조

## 선경종합건설

대표 김 완 식 (67회)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179-22

TEL : (054)533-9911 C·P : 011-512-7878

E-mail : jaco5366@hanmail.net

자동차부품제조

# (주)대성ENG

대표이사 문 한 석 (67회)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403-4

TEL : (041)551-2637 C·P : 010-3794-2287

FAX : (041)561-2639 E-mail : mhs2287@hanmail.net

## 신하용 법률사무소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하 용 (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45-4 범어타워 202호

TEL : (053)754-5100 C·P : 016-823-0554

E-mail : pacific0812@hanmail.net

기계 자동화 제작

## CFA

대표 최 기 한 (68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향리 568-25

TEL : (031)671-7170 C·P : 011-9587-1163

FAX : (031)671-7175 E-mail : ghchoi77@hanmail.net

제조업

노력하는 회사 꿈을 가진 회사를 지향하고  
고객의 기대를 앞서가는  
최상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태광크린

대표 곽 영 범 (69회)

C·P : 011-597-6806

“계성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류, 패션



의류사업부문

여성 Total Brand MINIMUM

20대 중반을 타겟으로 하는 도시적이고 모던  
한 여성캐릭터브랜드

가방사업부문

유럽과 일본, 미주지역에 가방류 OEM생산

사장 김 태 롱 (6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07-3 TEL : (02)3460-9519 C·P : 010-5224-3242 E-mail : kim1982@lubo.co.kr

무역

## 보고 International

사장 손 민 수 (69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8-19 리버뷰 오피스텔 1502

TEL : (02)332-1046 C·P : 010-3745-0006 E-mail : minsousohn@hanmail.net

“계성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운송업



한차원 높은 서비스정신은 기본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물류분야를 주도하겠습니다.

# 인천국제특송

대표 홍 창 현 (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64-8

TEL : (032)888-4111 C·P : 011-710-1171

FAX : (032)888-4113 E-mail : incheontrans@hotmail.com

스키, 스노우보드 제조, 유통



# 에이치포스

대표 황 성 원 (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47-11 (4층)

TEL : (02)532-7944 C·P : 010-4522-7944

E-mail : jj3046@naver.com



『啓聖同窓會報』  
발간을 축하합니다!



계성학교총동창회

www.keisung.or.kr

“계성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석산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생활환경도  
아름답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 (주)대곡산업

대표이사 백 경 진 (53회)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777

TEL : (053)814-7271 FAX : (053)961-2994 C·P : 010-3521-9601

좋은돌을 생산하여 최선을 다하는 **대곡산업**이 되겠습니다.

## 김&장 법률사무소



김 철 민 (54회) 고문,세무사	김 병 일 (56회) 고문
김 용 갑 (57회) 변호사	이 창 환 (57회) 고문
홍 철 근 (57회) 고문	박 무 석 (59회) 고문
임 주 재 (59회) 고문	김 재 우 (63회) 고문
이 진 환 (64회) 미국변호사	류 용 호 (73회) 변호사
장 영 욱 (73회) 전문위원	조 현 덕 (73회) 변호사
윤 치 삼 (76회) 변호사	김 기 훈 (86회) 변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TEL : (02)3703-1114



동도트레이딩/주/  
DONGDO TRADING CO., LTD.  
동 도 물 산  
DONG DO MOOL SAN CORP.



대표이사 이 결 (56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3 코포모 타워

(16-3 KOFOMO TOWER Sunae-Dong Bundang-Gu, Sungnam-Si, Gyeonggi-Do, Korea (463-825)

TEL : (031)711-8315 FAX : (031)711-6584 E-mail : dongdo@dongdo.co.kr

DONGDO TRADING  
PRODUCTS

- 전재 재료
- 기능성 점착 테이프
- 산업용 소재

“수술없이 디스크 치료하는 **양·한방** 협진병원!”

www.kidokh.com



- 중풍조기검진 | 종합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검진  
직장건강검진 | 학생건강검진 | 암검진(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간암, 폐암 등)
- 위내시경 | 대장내시경
- CT(단층촬영)검사 | MRI(자기공명)검사
- 척추재활치료 | 중풍재활치료
- 두통클리닉 | 어지럼증·이명클리닉 | 교통사고클리닉

원장 이 병 훈 (5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3동 470-5

C·P : 010-3508-3202

E-mail : 6788ksm@hanmail.net

대구기독교병원 기독한방병원  
TAEJU CHURCH HOSPITAL CHURCH HANBANG HOSPITAL

대표전화. 606-1616 | 지하철 2호선 두류역 12,13번 출구



KOMSA  
대한해사검정공사

# (주)대한해사검정공사

수출입화물선적전검사

FTA시대를 맞이하여 제1의 토종 한국 검정 회사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세계적으로도 존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일류 검정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장 지 수 (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52-1 메트로디오빌 1614호  
TEL : (02)754-8106 FAX : (02)754-8109  
C·P : 010-5320-8106 www.komsa.co.kr

NOVA (주)노바  
NOVA Corporation

## 21세기를 앞서가는 (주)노바

www.novakorea.net

WELCOME TO  
NOVA Corporation !!

대표이사 노 진 우 (59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333-7 금강펜테리움T타워 B-905 TEL : (031)730-0160  
FAX : (031)730-0164 C·P : 010-3246-2292 E-mail : generoh@novakorea.net

“계성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고객과 함께 꿈을 실현합니다.

# MJ그룹

고문 함 종 철 (59회)

C·P : 010-3388-0023

E-mail : haita3114@naver.com

www.samsungengineering.co.kr

## First in quality Best in value

Samsung Engineering is working toward expanding its markets, client base and business. Through encouragement, teamwork and a shared vision at Samsung Engineering, we believe we can reach our goal.

경영지원실 부사장 손 병 복 (62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467-14 삼성S타워

TEL : (02)3458-3126 FAX : (02)3458-4047 C·P : 010-3624-1012 E-mail : byungbok.sohn@samsung.com

SAMSUNG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굳건히 갖추고 고객 중심 경영의 실천을 통해  
“Good & Great Company”로 나아갈 것입니다.



posco

## 포스코특수강

대표이사 성 현 욱 (54회)

고객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작은 것을 더 크게 생각하겠습니다.

포스코특수강은 1997년 포스코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이래 경영혁신과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세계 제일의 특수강 메이커로 성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STS선재 생산 세계 1위 업체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3제강공장 건설 및 압연공장 합리화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했습니다.

포스코특수강 임직원 모두는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활동으로 특수강 업계의 Leading Company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재



무계목강관



환봉



빌렛



평강



단조품

■ 포스코특수강 생산제품 ■

posco  
SPECIALTY STEEL

경상남도 창원시 적현로 147 TEL : (055)269-6114 FAX : (055)269-690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포스코 SS & CC TOWER

www.poscoss.co.kr

www.yeundental.co.kr

예은치과는 언제나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Change life,  
Change smile

예은치과는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경영이념 아래 세밀하고 친절한 환자 중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수많은 임플란트 수술노하우를 가진 의료진들이 환자분의 고통은 공유하며 찾아서 시술하는 진료를 환자분들에게 제공합니다.

- ① 공동진료 협진 시스템
- ② 차별화된 시설 및 장비
- ③ 세밀하고 친절한 환자중심 서비스
- ④ 치아, 턱, 얼굴 미용관련 임상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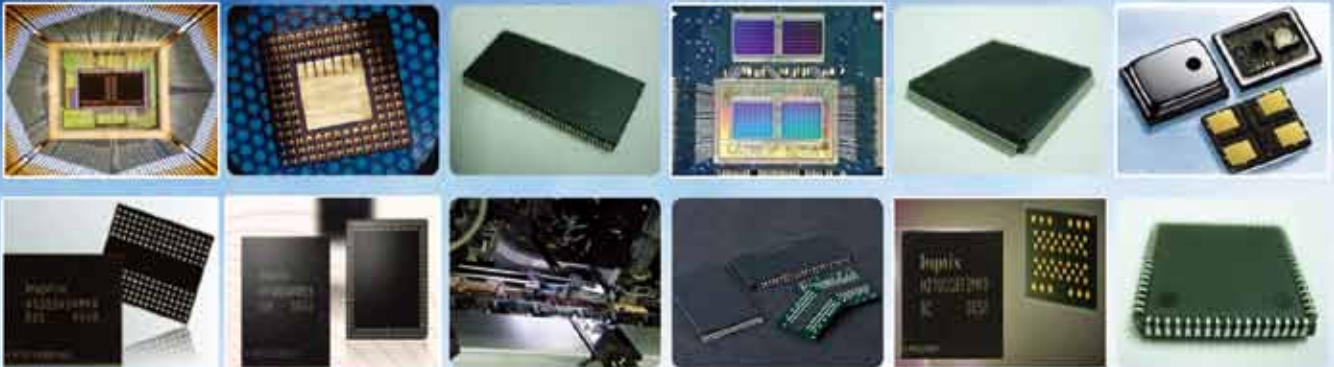
원장 성제경 (62회·충동창회 부회장)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 스카이 웰빙파크 203호 ☎ 진료문의 055-275-2875



# SUPERIOR SEMICONDUCTOR COMPANY

## OFFER SUPREME VALUE



세미텍은 고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고객감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미텍은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즐겁게 일하며 더불어 살자”의 사훈과  
“STAR 인재육성, 고객만족 가치창조, 자율투명경영” 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설립된 반도체 후공정 전문회사 입니다.

후공정 Total Customer Solution 을 제공합니다.

PKG Design - Back Grind - Assembly - Final Test

Core Product는

Memory : Computing, Consumer, Graphics, Mobile, Nand Flash

System LSI : SIP, MCU, T-CON, MEMS, Logic, DSP, ISP, ASIC, SOIC

고객의 새로운 Needs에 대해서도 최단 기간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지속적인 Global 인재육성을 통하여 최고의 품질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혼을 담은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CSP, STACK, MCP, PoP 등은 자체 연구인력을 통하여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차세대 제품에 대한 창의적 연구개발로 “반도체 후공정 Global Standard 기업 세미텍” 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Office



Plant I,II



Dormitory



Happy House

(우:365-824)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432-6  
(우:365-80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604  
(우:365-824)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135  
TEL : 043) 530-1300 FAX : 043) 536-2326

POWERTRAIN PARTS

# GLOBAL HUB

Devoting Every Effort to Happiness  
and Future of Humankind

The endless pursuit of better products,  
The quality of the product is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company.  
Valeo Pyeong Hwa will return your trust with our unique technology  
and know-how.



회장 김 상 태 (58회, 총동창회 부회장)



# 同行 同幸



신한은행의 동행은  
고객과 함께 가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서  
더 행복한 내일을 이루는 것,  
신한은행이 고객과 이루고 싶은  
동행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신한은행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은행장 서진원(56회)